

界記速

第 39 號

會 協 記 速 韓 大 社 團
法 人

- 권두언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이희규)
- 신년사 우리 모두 올해도 열심히 뛰어봅시다(신희동)
- 특집(1) - 중국·싱가폴 속기협회 시찰
 - 중국 북경시속기협회와 싱가포르의회 방문 보고(국제부)
 - 일본속기 120년 기념식 참석 보고(최광석)
 - 日本 速記 120年 記念式 參席記(박광택)
- 세미나지상증계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이봉선)
- 지방의회 탐방 강원도의회를 찾아서(정향인)
 -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록유산(홍보부)
 - 올챙이 사무관의 횡설수설
 - 해외시찰 보고(조영기)
- 단상 준비와 기쁨의 삶을 위한 첫 마음(조성풍 신부님)
 - 음성인식기에 관해서(이동준)
 - 21세기의 화두는 에너지 전환(정현정-경남거창군의회)
 - 小菊(민홍식, 가톨릭대심리학과 3년)
- 회원동산
 - 여유당 강가에서(송혜경)
 - 시카고에서의 3년 반(강수현)
 - 말레이시아·싱가폴 여행기(김일호-충남도의회)
 -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태평양을 보고(박경애-영암군의회)
- 새내기속기사의 변
 - 도전과 성취 그리고 국회속기사로서의 1년(조윤희)
 - 늦게 이룬 만큼 더 열심히...(최영림)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편집후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희 규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가슴 설레는 기대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기록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협회 회장직을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會員이 있으므로 協會가 존재한다는 생각하에 협회는 기쁨진 토양 역할을 하고, 회원은 튼튼한 가지와 즐거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속기인들이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난 해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벅찬 감동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침몰시키면서 가슴 벅찬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고 온 국민은 열두 번째 태극전사가 되어 지구촌을 뒤흔드는 폭발적 에너지를 토해내었습니다.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이후 1승조차 기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은 바로 손수 차려 놓은 성대한 월드컵 축제를 남의 잔치로 만들 수 없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잠재된 역량은 다른 어느 것보다 값진 자산이며,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기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정사의 정확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생산된 기록들을 신속하게 디지털화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회원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變化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成長과 發展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共同體意識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강력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면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가 반세기 가까운 대한속기협회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2003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국회의원)

우리 모두 올해도 열심히 뛰어봅시다!

신 희 동

대한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우렁찬 6월의 함성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한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多事多難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리만큼 숨가쁜 한 해였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성과를 정리하기도 전에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을 출발하여 벌써 2003년을 살고 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찼던 밀레니엄 축제와 국가적 행사들을 마치고 맞이하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好機를 또 한번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한번쯤 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문호인 소동파의 ‘마음속의 대나무’라는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막 움터 나올 때는 한 마디 정도 되는 싹일 뿐이나 여기에서 마디가 생기고 잎이 나온다. 처음에는 층층이 포개져 있는 마디가 마치 매미의 뱃가죽 같고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으나 이것이 자라면 수 십 길 이 되어 검을 뽑아 하늘에 닿을 듯한 기상이 된다.”

새해 벽두에 제가 회원 여러분에게 대나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대한속기협회의 모습이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나 나중 모습은 장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누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협회 또한 지난해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한 단계 발전된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계획한 대로 한 해를 보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作心三日하기 일쑤였고 龍頭蛇尾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이 따르지 못했고 다짐은 있었지만 지속이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癸未年 새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은 해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용 없는 큰 계획보다는 알차고 실속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해 열심히 뛰어봅시다.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각자의 마음 속에 우후죽순으로 장대하게 뻗어나간 대나무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올해 대한속기협회 집행부는 특별한 행사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서로 마음 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얼굴로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국 북경시속기협회와 싱가포르의회 방문 보고

국 제 부

협회는 국제부 행사로서 매년 인터스테노 총회나 중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터스테노 중앙회 일정이 정기국회 기간과 겹쳐 부득이하게 아시아권에 있는 북경시속기협회와 싱가포르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일자는 2002년 7월 15일에 북경시속기협회를, 2002년 7월 22일에 싱가포르 의회를 방문하였다.

방문자는 신희동(협회 이사장, 속기1과장), 이주성(협회 회원이사, 국회속기과), 유순태(협회 회원, 속기문화연구소장), 윤승희(협회 자격심사위원, 국회속기과), 김정아(협회 국제부아주부장, 국회속기과), 김영서(협회 회원, 경상북도 대구 달서구의회) 6인이었다.

북경시속기협회를 방문하여 韓珠璇 이사장과 唐可亮 상무부이사장 비서장, 王龍 부비서장 등을 만나 환담하였고 싱가포르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속기과장에 해당하는 Seah Ah Ee Chief Reporter & Editor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짧은 방문시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현장에서 습득한 정보와 e-메일, 자료 등을 통하여 얻은 양국 속기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중국에 대하여 -

중국은 1896년 자정원(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속기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발기자는 차시용이라는 사람으로 외교관이었다고 하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唐亞偉식 속기법은 1937년 唐亞偉 씨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한다. 이 분은 1939년에 타자속기도 발명했으며 현재 北京市速記協會 상무부이사장 비서장이고 기계속기 회사인 북경효군반공설비

유한공사 사장인 唐可亮 씨의 부친이기도 하다.

수필속기방식은 100여 가지가 있으며 전국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은 없이 각 省별로 속기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약 25개 정도이며 북경시속기협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모임이 있으면 주로 그곳에서 모인다고 한다.

북경시속기협회는 1981년에 회원들이 자비를 내서 설립했다고 한다. 회원은 300명 정도 되는데 전인대나 회사, 언론계, 지방정부의 선전부 등에서 속기요구를 해 오면 지원을 나가고 있으며 속기사 양성도 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컴퓨터속기인 亞偉中國語速記를 만드는 회사와 교육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우리 협회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과학위원회라는 곳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고 회원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속기사들은 전국 법원에 있는데 1만여 명 정도로 모두 컴퓨터 속기를 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우 전인대와 같은 의회체에서의 속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법원 중심의 속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했다.

속기사 양성기관은 민간과 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 6개월 내지 8개월을 배우면 1급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한다. 전국에 100여 개의 속기사 양성기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필속기를 배우는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컴퓨터속기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컴퓨터속기의 도입은 1993년부터로 사회에서는 전부 컴퓨터속기로 기록하며 수필속기는 비서직 등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전인대에서 기록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이며 모자랄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한 조에 2명(주무?부무식)으로 구성되어 타자속기를 한다고 한다.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며 예전에는 상무위원회에서 자료가 있는 것을 요약, 정리하였으나 모택동, 주은래 때부터 속기를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唐可爲 북경시속기협회부이사장이 쓴 “중국 컴퓨터속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글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중국 컴퓨터속기의 현황과 전망”

중국의 수필속기는 1896년에 창안되었다. 약 100년을 경과하여 중국의 속기는 컴퓨터속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많은 속기 전문가들이 기계속기 개발에 노력하였으나 보급되지는 않았고 수필속기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기 세계적인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속기사 집단은 세계 속기연구 발전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최고인민법정의 요청에 의해 1993년 초, 북경시속기협회는 오랜 역사가 있는 亞偉速記式 컴퓨터속기 특허장치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현재 亞偉中國語速記는 보급이 가장 많이 된 컴퓨터속기 장치로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가장 빠른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MS-DOS로부터 MS-WINDOWS로 이행하여 WINDOWS2000, WINDOWSXP환경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금후 컴퓨터 개발의 경향인 레드햇 LINUX시스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亞偉中國語速記는 唐亞偉교수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기계속기와 컴퓨터의 원리에 대하여 오랜 연구를 하였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1993년 초, 프로젝트가 설정되었다. 프로젝트에는 중국 중국어정보처리학회와 북경시속기협회, 북경효군반공설비유한공사, 북경 Huahai회사, 북경YiBin 전자과학기술회사 등이 투자하였다.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연구에 투입되어 마침내 1994년 5월 프로젝트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20명 이상의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亞偉中國語速記는 1994년 5월 “1994 전국컴퓨터전시회”에서 전시와 함께 실연이 있었는데 그때 전시회에 입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사법부문과 보도, 출판계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었다.

亞偉中國語速記는 컴퓨터와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이다. 쌍방이 접속되어 있으면 한자가 컴퓨터 화면위에 직접 표시된다. 속기사는 연설을 듣고 기계에 입력할 수 있다. 특별주문한 키보드 또는 마우스가 텍스트를 체크하고 편집하기 위해 사용된다. 텍스트는 즉석에서 프린트될 수 있다. 亞偉中國語速記의 발명은 중국어 속기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94년 11월 23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중앙당교본관 메인 회의실에서 국가노동부의 직업기능감정센터는 亞偉中國語速記의 기능검정을 행하였다. 11명 전원의 전문가와 학자는 상세하게 장치를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중국에서는 선두를 달리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감정이 이루어지고 언론관계에서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199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행국은 이 새로운 기술적 성과인 亞偉中國語速記를 국가레벨에서 전국에 보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5년 10월 20일, 북경도서관의 회의실에서 대 전시활동이 열렸다. 약 1만 명의 입장객이 있었다.

199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亞偉中國語速記를 국가급 기술항목에 편입시키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亞偉中國語速記는 北京市高新技術產品 2등을 수상하였다.

1997년,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하여 전국 법정시스템은 亞偉中國語速記를 보급하고 법정에서 사건기록의 컴퓨터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것이 법정에서 사건기록에 관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1월, 최고인민법정은 제1회 전국 법정 컴퓨터 기록기능컨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는 12省으로부터 온 48명이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제2회, 제3회 컨테스트가 개최되었다. 경기속도는 제1회 컨테스트가 분속 160문자에서 180문자, 제2회가 180자에서 210자, 제3회는 180자에서 230자로 모두 30분간 낭독되었다. 이 컨테스트는 기록기능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 11월, 靑島에서 전국의 법정으로부터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 법정 사건기록의 컴퓨터화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원장은 “이것은 좋은 방향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넓혀야 한다”라고 코멘트하였다. 모든 레벨의 법정은 그것을 지지하고 사법서비스 현대화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열게 되었다.

1998년 이래 亞偉中國語速記를 사용하는 속기사는 사회에 프로페셔널한 속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4년 후, 20개의 속기서비스 전문회사가 북경시에 설립되었고 그 외에도 전국에서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은 커져서 성숙해 가고 있다. 관련 종사자는 10명으로부터 1000명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현장속기 서비스를 주로 하는 정부와 대기

업, 텔레비전 방송국, 보도, 온라인,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다.

속기시장 개발의 경향은 차제에 사법부 쪽으로의 제공으로 옮겨지고 있다. 법정에서의 사건심리에 亞偉中國語速記를 이용하고 있고 전국 각지의 법정시스템 기록을 하는 곳에 약 1만 명의書記가 있다. 亞偉中國語速記는 전국 법정기록의 개혁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30개 이상의 대학, 단과대학, 중화여자학원, 북경과학기술대학, 강서사법학원, 천진사법학원에서는 亞偉中國語速記 코스를 설치하고 있다.

全國人民代表大會의 상임위원회 정보센터는 이미 10명의 속기사를 양성하였고 이들은 내년 全人代에 정식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속기는 중국에서 한층 진일보해 나가게 되었다.

- 싱가포르에 대하여 -

싱가폴 의회의 회기는 1년에 40일이고 의원은 94명이다. 의원들은 대부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며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 의회의 회의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후 12시 30분에 열리게 되어 있다. 사무처 전 직원은 5, 60명 정도이고 그 중 속기사는 5명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싱가폴은 의회의 구성형식이라든지 용어 등이 영국적이다. 속기사는 Stenographer라고 하지 않고 Reporter라고 한다. Stenographer와 Shorthandwriter는 분당 100자 수준의 기록이 가능한 자이고 Reporter는 분당 150자 이상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싱가폴 전체에 Reporter는 20명 정도 있는데 의회에 5명, 법원에 10명, 기타 각급 회의체에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의회 속기사는 15분에 한 번씩 교대하며 회의록에는 15분씩 기록한 내용이 나누어져 표시되어 나온다. 즉, 회의록을 보면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커머셜스쿨(일종의 학원)을 통해 속기사를 양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속기시스템의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한다. 음성인식기는 아직 도입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컴퓨터에서 속기사가 쓴 부분만을 오디오시스템으로 들을 수 있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속기사는 회의장에 들어가서 발언자와 시간 등을 체크만 하고, 나와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력을 하게 되는데 영국 의회의 본회의장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150만 파운드(한화 약 28억)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현장에서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을 번역한 내용이다.

1)싱가폴 의회의 회의록은 언제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습니까?

-1954년(선거에 의한 최초의 영국 식민지의회 하원이 1955년에 열렸다) 부터 발간된 회의록이 전부 보관 되어 있다. 700에서 800페이지 정도의 회의록이 70권 정도 있으며 CD로 보관하고 있고 종이 회의록 은 본회의장과 도서관에만 비치하고 의원들에게는 E-메일로 보내 준다.

2)싱가폴은 공용어가 네 가지인데 회의와 회의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만다린(싱가폴의 공용어 네 가지) 중 한 가지로 발언할 수 있으나 속기사는 영어로만 듣고 영어로만 기록한다.

3)싱가폴 의회 속기사의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고용되어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까?

-싱가폴의 의회속기사는 모두 공무원이고 처우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 보수는 매우 높으며 속기사의 보수도 이에 준하므로 만족도가 높다. 싱가포르의 속기사에게 파트타임과 같은 형태의 일은 없고 모두 풀 타임으로 고용되어 일한다. 싱가포르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여서 사 적인 속기사무소와 같은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4)싱가폴 의회는 회의록의 발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회의가 끝나고 48시간 이내에 발간해야 한다.

5)한국 국회의 경우 속기를 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발간하는데(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간담회,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 싱가포르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회의의 회의록이 발간됩니까?

-본회의, 상임위, 몇몇 특별위 등의 회의록만 발간된다.

6)한국 국회의 경우 회의가 끝나고 원고가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내부용 LAN망에 회의록을 게재하고 그 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외부용 인터넷에

회의록이 폴텍스트로 공개가 되는데 싱가포르 인터넷에 어떤 방식으로 회의록을 서비스합니까?

-먼저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을 의원실로 보내면 의원 본인이 점검한 후 수정한다. 그런 다음 정부, 의회, 사법부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는데 이것은 회의가 끝난 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7) 음성인식기의 출현이 속기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음성인식기가 속기사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성인식기가 상업적으로 실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속기시스템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수필속 기를 배우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 쓰는 CAS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CAS시스템과 같은 것에도 관심이 간다.

8) 싱가포르 의회 속기사들의 업무 시스템은 어떠하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5명의 속기사가 15분씩 속기한 후 파일을 편집자에게 보내고 편집자는 모든 파일을 취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보낸다. 의원들의 확인이 끝난 원고는 회의록으로 확정되어 의원들에게 보내진다.

9) 회의록 작성 시 수정(修文)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말한 그대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기록합니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복되는 말이나 쓸데 없는 말은 생략할 수 있고 문법적인 잘못도 수정할 수 있다.

10) 속기사에게 보수교육이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합니까?

-속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특별히 따로 없다.

11) 싱가포르에 속기사들의 협회가 있습니까?

-The Singapore Government Shorthand Writers Association이라는 협회가 있다. 유니온 형태이며 조합원은 150명에서 160명 정도이다.

일본속기 120년 기념식 참석 보고

최 광 석

1. 기 간 : 2002. 10. 25(금) - 28(월)

2. 장 소 : 일본 동경

3. 한국대표

- 박광택(협회 부회장)
- 김한우(한양대학교 교수)
- 최광석(협회 회원, 한국스테노 이사)

4. 참석인원

- 주최국 외 3개국 200여명
한국(3), 미국(1), 중국(유학생 1)
주최국(200여명)

5. 행사내용

- 일본속기 120년 기념식
- 전자속기 경기대회
- 리셉션
- 동아시아 4개국의 전자속기 키보드 전시 및 설명회

6. 주요활동

- 1) 일본속기 120년 기념식
 - 기념 축사
 - 기념품 전달

2) 일본 중의원 방문

- 일시 : 2002. 10. 25(금)
- 안내자 : 일본속기협회 회원 아라키
- 주요인사면담
 - * 속기부장(국장) 다지마
 - * 속기과장 우쓰바
 - * 경시장 야마다
- 경시장 야마다씨의 안내로 중의원 회의장과 건물에 얽힌 일화 설명들음.

3) 전자속기경기대회

- 일시 : 2002. 10. 26
- 장소 : Toshi center hotel
- 참관기

총 8명 정도가 참가했으며, 경기대회라기 보다는 선을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가자들은 치는동안는등 대회에 임하였고, 세 가지의 기종이 참가하여 자용을 겨루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상을 받는 것으로 보여 어떤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된 느낌이다.

경기방법은 5분 낭독에 수정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것을 바로 채점하는 방법과 수정시간을 2-3배 가량 주고 수정본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있었다. 분당 150자 속도부터 다양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낭독 전에 전문 용어는 미리 알려주어 약어등록을 하거나 연습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채점을 하고 앞에서는 낭독을 하고 일부는 구경을 하는 등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시험이라 우리나라의 경기대회보다는 격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4) 각국의 기계속기 설명회

- 한국의 기계속기 설명

김한우 교수가 우리나라의 CAS기종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변키가 달려 있는 특징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스템으로 4인이 2인 속기 2인 수정의 방식으로 자막방송을 실시하여 정확도가 99.8%까지 나온다는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미국의 속기기계 설명

미국 스테노그래프사의 사장이 발표하였으며,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작업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였다.

- 중국의 속기기계 설명

중국에서는 비자발급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중국에서 속기를 배운 중국유학생이 대표로 참석하여 설명하였으나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 일본의 전자속기 설명

일본은 자체적으로 타자기형 속기키보드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서 미국기계를 사용하고 프로그램만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키보드형의 속기키보드는 일본에서 두 가지 제품이 생산되어 이 제품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 중인데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참석하지 않은 스테노키라는 제품으로 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배출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시도하고 있다거나 음성인식기를 일부 이용하고 속기사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자막방송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으나 어떤 사람은 실패하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험 중이라고 하는 등 말이 달라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5) 버스투어

- 동경타워 방문 : 높이 333미터의 동경타워는 NHK를 비롯한 일본의 방송전파를 발사하는 곳으로서 평지에 위치하여 타워자체의 높이는 있으나 남산타워보다는 높아 보이지 않고 형태도 철골구조로서 특별하게 외관이 미려하거나 예술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 그 이외에 일본 황궁과 아끼아바라, 아사쿠사 등을 방문하였다.

7. 성과

- 1) 일본의 속기계와 친목 강화
- 2) 우리 속기기계와 자막방송의 우수성 홍보
- 3) 각국 속기키보드의 현황 파악
- 4) 각국 속기인과의 교류

(한국스테노대표이사)

日本 速記 120年 記念式 參席記

박 광 택

일 시 : 2002년 10월 25일 ~ 27일

장 소 : 일본 속기협회가 있는 東京 지요다구 주변 일대의
TOSHI CENTER HOTEL, CAPITAL TOKYU HOTEL

참가자 : 박광택 (대한속기협회 부회장, SK 시화기름나라주유소 代表)
최광석 (한국스테노 대표이사)
김한우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일 정 : 2002년 10월 25일 오후 일본 중의원 시찰
2000년 10월 26일 오전 기계속기 실시간 번문작업 컨테스트 관람
오후 120년 기념식 및 축하 리셉션
2000년 10월 27일 오후 전자속기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존경하는 전국의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니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隔世之感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한속기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10월25일~27일까지 日本 東京에서 거행된 일본속기 120년 기념행사에 李熙圭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가한 바 있어 여러 회원님께 報告드리고, 아울러 기념행사 내용과 더불어 참가했던 素懷의 일단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일본속기협회로부터 일본속기 120년 기념행사를 韓?中?美?日 속기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고 싶다는 안내 및 초청이 있었던바,

李熙圭 회장님께서서는 바쁘신 정치일정 관계로, 申熙東 이사장님께서서는 정
기국회 관계로, 기타 협회 간부님들도 각기 사정이 많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뜻하지 않게 本人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기계속기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최광석 CAS 사장과 그동안 기계속기의 기술적 자문을 맡아 온 김
한우 한양대 교수가 저와 동행을 했습니다.

※日本 衆議院 視察

2002년 10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리따 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숙소에 여장을 풀 뒤 곧바로 일본 속기협회에서 마중
나온 아라끼 씨의 안내로 석양이 비치는 일본 중의원을 시찰하였습니다.
日本 중의원 의사당의 겉모습은 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본인이 국회 재직
시 방문했던 때와는 달리 관계인들의 대하는 태도가 꽤나 진지함을 보여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일면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일본 중의원 사무국 기록부 속기사인 쓰시마 야쓰코 양의 안
내로 일본 중의원 기록부장(우리의 기록심의관격임)실에서 田島 기록부장
과 副部長, 속기2과장 등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교환한 뒤 양국
속기계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 중의원 山田
위시장(衛視長)의 친절하고도 열성적인 안내로 중의원의사당 이곳저곳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특히 일본 국민은 아직도 천황을 국가의 상
징적 존재로 존경하면서 받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일본인의 섬세
한 면도 엿보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山田 위시장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
직원들이 성의 있는 안내를 해 주어 무척 고마웠다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 국회 직원한테 받았던 명함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회 내에는 이등박문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보면서 ‘바로 저
者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원흉이며, 국모이신 민비 살해의 주범이구나’ 라
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잠시 격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진작에 이등박문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일찍 先進文明을 받아들였다면 결
코 일본에 뒤질 리가 없었고 과거와 같은 수모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새삼 우리 국민 모두는 앞으로 더욱 각성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日本速記 120年 記念式 參席 및 祝辭

10월 26일 오전에는 오후 기념식 행사 전에 개최된 일본 기계속기 경연 대회를 시찰하였습니다. 5분간 낭독한 문장을 급수별로 참가한 선수들이 제각기 열심히 닦은 실력을 발휘, 채점성적에 따라 시상식을 가졌는데 채점방식은 오자, 탈자를 점검한 후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사단법인 일본속기협회장인 堀口 씨와 이사장인 宮田女史 등 일본속기협회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傳統 日式으로 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드디어 메인 행사인 日本速記 120年 記念式에 참석하였습니다.

식순에 따라 사회자의 경과보고가 끝난 뒤 堀口 일본속기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미력하나마 본인이 李熙圭 대한속기협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김한우 교수가 통역). 美國 측에서는 某 기계속기회사의 대표가 축사를 하였고, 中國에서는 중국 국내 사정에 의해 협회 회원은 참석이 무산되었으나 대신 일본에 유학 중 기계속기를 배우고 있는 한 여대생이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지고 갔던 간단한 선물을 교환하면서 각 지역에서 참석한 일본 속기인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잠시 후에는 일본속기 120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리셉션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기념식장과 축하 리셉션장에 참석한 일본 속기인들은 北海道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남녀 老속기사, 일본 고유의상인 기모노 차림의 中年 부인이 된 속기사, 현재 일선에서 속기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속기사 등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데 어울려 뷔페식 식사와 함께 재치 있는 사회자의 진행으로 여흥을 즐겼습니다. 특히 귀빈 대접을 받은 우리 일행이 주최 측에서 마련한 축하 리본이 들어 있는 기구를 터트렸을 때는 축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러한 기구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축하 분위기를 한껏 북돋울 수 있어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일본속기협회 회원들에게 한국 속기계의 존재는 뚜렷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日本速記協會 주관 國際電子機械速記會議 및 東京都 議會 視察

10월 27일은 일본속기협회 주관으로 소위 국제전자기계속기회의가 있었는데 日本의 기계속기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이어 우리나라와 美國의 순으로 자국 기계속기에 대한 현황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한우 교수께서 최광석 사장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선전효과는 거두었으나 기계속기에 관한 한은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화 되어 있었고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못한 상태였습니다.

東京都 의회 시찰은 원래 일정에는 없었는데 10월 26일 일본속기 120년 기념식 리셉션장에서 東京都 의회 속기책임자인 현속하고 아리따운 여성이 우리 일행의 방문을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추가된 일정이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日本 東京都 의회, 말로는 都의회이지만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는 중의원 못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서울시의회와의 교류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시의회와 대한속기협회 사이에는 아직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유대가 잘 되어 있는 일본 속기계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도 서울시의회 속기인들과 유대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이러한 뜻을 협회 이사진에게도 전했고 서울시의회 속기 관계인에게도 종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협회 측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수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으나 제 경험들이 후배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하여 일본에서 있었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문한 일본의 참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자 10월 26일에는 도쿄 시내 미니관광을 하였습니다. 일본 황궁, 도쿄타워, 일본전신공사전시관 등을 관람했으며 10월 27일 밤에는 신주꾸의 대형서점, 백화점,

전자상가, 도쿄돔과 과거朴 대통령 시절金大中 대통령이 납치 당했던 호텔 등을 다녀보았는데 이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일본 나카소네 속기식 창안자이며 일본속기협회의 중추적 간부로서 기념식 당일 사회를 보신 나카소네 씨가私費로 저녁식사와 함께 휘황찬란한 동경 시내 야경을 관광시켜 주었고 우리 일행에게 조그만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께서 주신 리본은 협회에 샘플로 증정하여 향후 행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시내에는 어느 곳을 가나 깨끗했고 지진이 심한 나라여서인지 모든 건축물과 도로는 너무나 견고해 보였습니다. 또한 상세한 안내문과 곳곳에서 절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음식문화 면에서 너무나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딱 맞게 나와 남기는 음식이 전혀 없는 일본 사람들의 음식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본 시내의 변화가는 우리나라 명동과 흡사했으며 전자상가, 서점가, 유흥가 등 특성별로 구획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일본 국민성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日就月將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필자 略歷

- 1938. 生
- 1959. 민의원 속기과 錄事에 응시, 근무
- 1960. 건설부 국토계획국 속기업무 담당
- 1961. 민의원 속기과 행정서기(속기업무) 응시, 근무
- 1990. 편집업무 담당
- 1994. 국회 명예퇴직(대통령 훈장 수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및 산업대학교 ITP과정 수료
경기도주유소협회 회장 역임
시화 SK 기름나라주유소 대표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

이 봉 선

아무리 작은 행사라 해도 행사 하나를 별 탈 없이 치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속기학술세미나라는 조금은 거창한 이름으로 행사를 치른 지도 어느덧 10회째. 이제 제법 노하우가 생겨 첫 세미나를 준비할 때에 비하면 그 진행과정이 순조롭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처음 같다.

그저 1년에 이틀, 머리로 식히고 반가운 얼굴들도 볼 겸 참가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이야 차려진 밥상에서 이것저것 맛있게 먹어만 주면 그만이지만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라 하더라도 맛깔스런 밥상을 차리려는 집행부로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찌나 많은지.

세미나 3일 전쯤이 되면 각 팀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이동팀은 배차 등 이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챙겨야 하고 경품, 먹거리, 일회용품 등을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지원팀은 장도 봐야 하고 접수를 맡은 팀은 회원명찰에서부터 방 배치까지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세미나 하루 전. 자칭 선발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선발대가 출발하고 나면 그야말로 작전개시다.

6월 1일 세미나 당일.

집행부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회원들은 하나 둘 국회로 모이기 시작한다. 한동안 뵈지 못했던 대선배님도 계시고 낮은 익은데 이름이 잘 연결되지 않는 회원들도 있는가 하면 생판 초면인 얼굴도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반가운 것은 이유야 어쨌든 속기라는 한 배를 탄 때문이리라.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금세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일 게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원체크가 끝나면 드디어 출발. 이제부터의 시간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싣고 버스는 부릉 부릉~ 국회를 벗어난다.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파아란 산과 들판이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오랜만에 보는 산과 들은 우리 모두를 들뜨게 한다. 경치가 좋다가보다는 좋은 곳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를 더욱 들뜨게 하는 것은 아닐까. 1시간 정도 달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세미나 장소인 천안상록리조트에 도착했다.

참고로 천안상록리조트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도 나중에 한번쯤 들러 보면 좋을 듯싶다.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먼저 도착해 짐을 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간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세미나장으로 향했다.

선발대의 깔끔한 준비 덕분에 세미나는 곧바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속기인들의 공통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회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희규 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들어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최경효 교수님의 ?VDT증후군 임상양상과 예방대책?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속기사들로서는 공통적으로 당면한 건강문제여서인지 모두 체조를 열심히 따라하며 열의를 보였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속기사들의 VDT증후군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호선 수석전문위원의 ?현대음악의 이해?는 음악에 문외한인 우리들로서는 조금 난해하기도 했지만 일단 평

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야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지 않는가. 좋은 음악을 들으며 잠시나마 지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주제발표인 국회 김성곤 의사국장의 ?의회운영의 실제사례 연구?는 속기실무와 직접 관련된 주제여서인지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는데 실제 사례별 설명이 자세히 곁들여져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모든 주제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웃음과 이야기를 반찬 삼아 저녁식사로 준비된 보글보글 버섯전골을 맛있게 먹은 후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외무대로 이동했다. 모닥불을 피워 놓고 별인 흥겨운 여흥시간은 진행자의 진행순서가 작년과 너무나 똑같은 바람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이리저리 뛰고 노래하는 사이 우리 모두는 어느새 하나가 된 듯 즐겁기만 했다. 몇 잔의 술에 취하고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서 그 밤은 그렇게 짧게만 느껴졌다. 밤늦도록 한바탕 유쾌함을 쏟아내고도 우리들은 남은 밤 평소 못 다한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나누며 기분 좋은 취기 속에 따뜻한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일 둘째날.

둘째날도 회원들 모두는 화창한 날씨와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았고 시원한 해장국으로 속을 풀고는 국선도 시범, 야외 족구경기 등 삼삼오오 자유스럽게 오전 시간을 활용하며 서로 간의 결속을 다졌다. 그런 다음 12시경 손에 손잡고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 독립기념관 참관을 마지막으로 아쉬움 속에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돌아오는 길,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듯했다. 우리는 세미나 일정 동안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였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한속기협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야외무대에서 보여 주었던 하나된 모습, 우리는 그 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 가슴 속에 함

께 했던 시간을 소중한 기억

으로 간직할 것이다. 그 속에 내가 함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대한속기협회의 단결된 모습을 기원해 본다.

(협회 홍보부기자, 국회사무처 속기1과1담당)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 결과보고

1. 일 시 : 2002. 6. 1 ~ 6. 2

2.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소재)

3. 참가인원 : 국회 69명/ 지방의회 72명/ 기타 29명/ 총 170명

4.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1) VDT증후군 임상양상과 예방대책

- 최경효(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2) 현대음악의 이해 - 천호선(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 의회운영의 실제사례 연구(지방의회의사실무를 중심으로)

- 김성곤(국회사무처 의사국장)

5. 속기경기대회 결과

금상 : 부산광역시(신상오, 고명선, 이경남)

은상 : 국회사무처(주정순, 유경화, 최영림)

동상 : 국회사무처(박정현, 윤미영, 최혜련)

강원도의회를 찾아서……

정 향 인

호반의 도시라는 예전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겨울연가’의 도시로 더 잘 알려진 춘천! 이번호에서는 아름다운 겨울도시 춘천에 자리 잡은 강원도 의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춘천은 옛날 백국의 고도로서 서기 637년(신라 선덕여왕)에 군주를 두어 통치하였으며 그 이름을 우수주라 불렀고 그 후 수약주, 삭주로 불리우다가 1412년(태조3년)에 현재의 이름인 춘천군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두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칭함으로써 춘천은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찾아가는 겨울도시, 경춘선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겨울여행 - 사실 강원도의회를 취재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느낌이 더 맞을 듯 하다 - 춘천역에 내리자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까? 그리 반갑지 않은 겨울비였다.

봉의동에 위치한 의회에 도착하니 송영미 회원은 벌써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오세록 계장님, 김용수 차석님 이하 여덟 분의 회원들 모두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인지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분주함이 느껴졌다.

먼저 강원도의회와 회의록에 대한 의사계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기록에 대해,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의회는 다른 곳과 달리 기록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책자회의록 뿐만 아니라 CD로도 회의록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회의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의회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8명의 속기사가 2인 1조로 편성되어 4개의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조정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30일이라는 회의록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8명의 실무 속기사들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 보였다. 다만 8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속기에서부터 회의록 작성, 인터넷 등록, 회의록 배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 신속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 회의록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은 속기사로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일행은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관람한 후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일까? 점심시간이 된 줄도 모른 채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강원도의회도 여느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절실한 당면문제로 실무속기사들의 일반직화 문제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2003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컴퓨터속기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업병에 대한 것 등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컴퓨터속기에 대한 생소함에서 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 주었는데 우리 모두는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인즉, 유일한 컴퓨터속기사인 함정민 회원이 행정감사 때 겪은 일로 회의 도중 컴퓨터속기장치의 콘센트를 뽑는 사태(?)가 발생하여 속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세상에, 그러면 그 순간 기록은 어떻게...)

춘천의 대표적 먹거리인 닭갈비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우리는 다시 모여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여기서 잠깐,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려면 뼈 있는 닭갈비와 뼈 없는 닭갈비를 같이 시켜야 한답니다. 닭뼈에서 국물이 우러 나와야 더욱 더 맛이 있다고 하네요.)

인원이 적은 관계로 작업환경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올 초에는 사무실 책상을 작업하기 좋은 것으로 바꾸었는데 새해에는 지하 3층에 있는 사무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또한 새해에도 서로 아껴 주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직 미혼인 3명의 회원이 꼭 결혼하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있었다. 아무쪼록 강원도의회 회원들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꿈은★이루어진다.)

우리 일행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즐거웠던 탐방취재를 마무리 지었다. 우리 일행은 이번에 강원도의회를 취재하면서 많은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강원도 내에 7개 시와 11개 군이 있는데 이 중 6개의 시·군에만 속기사가 있다고 한다. 춘천시의회에 속기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고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겨울비와 닭갈비의 내음을 뒤로 한 채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 보았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해 왔을까…… 앞으로는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좀더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홍보부 기자, 국회사무처 속기2과 2담당)

강원도 소개

면적은 1만 6873.72km², 인구는 155만 2667명(1999)이다. 동쪽으로 동해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 황해도·경기도, 북쪽으로 황해도·함경남도, 남쪽으로 경상북도·충청북도와 만난다.

1999년 기준으로 가구 수는 50만 668가구이며 행정구역은 7시 11군 24읍 9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내에서는 홍천군이 가장 넓으며, 인구는 원주시가 가장 많다. 도청소재지는 춘천시 봉의동이다. 강원도의 상징물로 도의 꽃은 철쭉, 도의 새는 삿갓새, 도의 나무는 잣나무, 도의 동물은 반달곰이다.

| 강원도의회 연혁 |

• 초대 강원도의회(1956. 9. 6 ~ 1960. 12. 20)

- 1956. 8. 13 초대 도의원 선거(25명)
- 초대 도의회 개원

• 제2대 강원도의회(1960. 12. 21 ~ 1961. 5. 16)

- 1960. 12. 12 제2대 도의원 선거(28명)
- 1960. 12. 21 제2대 도의회 개원
- 1961. 5. 16 지방의회 해산(52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 제3대 강원도의회(1991. 7. 8 ~ 1995. 7. 12)

- 1991. 6. 20 제3대 도의원 선거(54명)
- 1991. 7. 8 제3대 도의회 개원(전반기 의장단 선출)

• 제4대 강원도의회(1995. 7. 13 ~ 1998. 7. 12)

- 1995. 6. 27 제4대 도의원 선거(58명)
- 1995. 7. 13 제4대 도의회 개원(전반기 의장단 선출)

• 제5대 강원도의회(1998. 7. 13 ~ 2002. 7. 14)

- 1998. 6. 4 제5대 도의원 선거(47명)
- 1998. 7. 13 제5대 도의회 개원(전반기 의장단 선출)

• 제6대 강원도의회(2002. 7. 15 ~ 2006. 7. 14)

- 2002. 6. 13 제6대 도의원 선거(43명)
- 2002. 7. 15 제6대 도의회 개원(전반기 의장단 선출)

닭갈비의 유래

춘천 닭갈비의 유래는 약 1,400년 전 신라시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고 50년대 지금의 강원은행 본점 자리에서 김 씨라는 사람이 닭불고기 집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70년대 초 요선동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좀더 확실한 것은 70년대 초부터 명동 닭갈비 골목을 중심으로 4개 업소가 본격적으로 닭갈비 요리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닭갈비’란 말은 원래 홍천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홍천의 닭갈비는 냄비에 육수를 넣고 닭요리를 한 것인데 홍천과 태백에 지금도 이 음식이 남아 있다.

춘천에 숯불 위에 석쇠를 얹어 닭고기를 요리했던 숯불닭갈비가 있었는데 71년부터 닭갈비판이 등장하면서 춘천 닭갈비가 태어난 것이다. 춘천에서 닭갈비가 발달한 배경 중의 하나는 춘천지역에 양축업이 성했고 도계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닭갈비는 지금도 그 맛과 양에 비해 가격이 대단히 싸기 때문에(70년대 초 닭갈비 1대 값은 100원이었다.) ‘대학생갈비’, ‘서민갈비’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만드는 법>

1. 양념고추장을 닭갈비에 골고루 발라 7~8시간 재운다.
2.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도톰하게 채썬 양배추, 고구마, 당근, 파를 넣는다.
3. ②위에 재운 갈비를 얹는다.
4. 야채와 닭갈비를 함께 볶다가 닭갈비가 익으면 적당하게 잘라서 먹는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록유산

홍 보 부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2건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97. 9.29~10. 1)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2001.6.27~6.29)하여 승정원 일기(국보 제303호)와 직지심체요절 등 우리나라 기록유산 2점 등 11개국 21점의 각 국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문화국가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서 널리 공인받게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처 등에 보관된 위협에 처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 응용을 통하여 값진 소장문서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목록작성사업이다. 이러한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통해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록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록신청이 가능하다.(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등록처럼 국가 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며 조선왕조 제4대 임금인 세종이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우리말과 구조가 다른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여서 대다수 백성들이 배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세종 25년(1443)에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

세종 28년(1446)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설명한 한문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책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북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귀중본이다.

조선왕조실록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병화에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전하여 내려왔다. 정족산,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1910년 일제가 당시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다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대로 소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현재 27책만 남아 있다. 적상산본은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일기로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역대 국왕들의 하루 일과,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회의 및 상소 등을 모두 전제한 연대기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라면 ?승정원일기?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1차 사료이다. 288년간 매일의 날씨정보를 기록, 수록한 천문 기상학 자료 이외에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등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의 승려인 백운화상이 역대 불조(佛祖)들의 법화(法話)를 요약·편찬한 고서적으로서 1377년 청주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인쇄되어 현재는 그 하권(下卷)이 유일하게 남아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신청된 모든 기록유산을

심의한다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 신청한 직지심체요절도 심의되었으며 소장국이 프랑스라는 점에서 그 등록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세계기록유산 등록은 소장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유산 자체의 가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양에서의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크의 성경(1455년경)과 함께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도 등록하게 되었다.

기록하는 사회

서삼영 한국전산원 원장

“한국은 세계가 꿈꾸는 미래사회를 가 본 유일한 정보화 메카입니다.” 최근 필자가 어느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벤처투자가로부터 들은 말이다. 십수년간을 정보화 추진에 몸담아 온 필자는 요즘 국내외에서 이런 찬사를 자주 듣는다. 이럴 때마다 미력이긴 하지만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찬사를 들어도 좋은가 싶어 겁이 날 때가 많다.

정보화 기반은 세계 최고일지 모르지만 그 위에 이룬 것에 대한 답이 많지 않아서다. 정작 필자가 정보화를 통해 하고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투명한 사회 만들기다. 투명한 곳에서만 진실이 싹트고 진실 위에서만 선진 신뢰사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가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투명사회를 이루는가. 그것은 기록에서 출발해 기록의 공개로 이뤄진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공식회의나 재판과정, 기업 회의도 가감 없이 기록하게 해야 한다.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될 결정하는 웃지 못할 행동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미국 법정에서 꽤나 오랫동안 통역을 한 일이 있는 필자는 법 앞의 진실이 율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한 기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곤 했다. 기록 앞에선 어떤 천재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이지 기록이라는 면에서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선 후보 아들의 간단한 병역비리 건 하나를 두고 온 나라가 반년을 넘게 소진하고서도 국민은 지금도 속시원하게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다. 기록이 없으니 거짓말이 득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102개국 중 40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필자가 속한 정부위원회의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위원회가 이룬 일도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필자는 이 기록을 더 소중히 여긴다. 기록을 통한 투명한 정부와 사회 건설이 정보화의 최우선 사업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록하는 사회가 선진사회이기 때문이다.

올챙이 사무관의 횡설수설

조영기

“합격!” 그 한마디에 힘겨웠던 순간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시험’이란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와 비로소 밝은 햇살을 맞는 느낌이다. 동시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1999년 12월 말, 정기국회 원고 정리가 끝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가운데 승진시험이 있다는 발표는, 더구나 승진과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침? 뜸 공부에 매료되어 있던 내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식이었다.

그 며칠 후 너무 욕심을 내어 책을 본 것이 원인이었을까, 아니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달리 표현이 되지 않는 느닷없이 찾아온 통증! 왼쪽 엉치뼈에서 시작해 발바닥까지 내뻗치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은 ‘우째 이런 일이……’이란 자조 섞인 한숨마저도 속절없이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시작된 통증은 ‘곧 낫겠지’ 하는 나의 바람을 뒤로 한 채 책과의 씨름이 아닌 병마와의 긴 싸움을 알리는 전주곡인 양 5분도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일단 시험이라도 봐 보자’는 욕심과 오기로 시험을 치렀으니 결과는 불합격일 수밖에. 그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우쭐해져 스스로의 지나친 과욕이 부른禍였으리라. 덜익은 내게 아픔을 줌으로써 시험도 다 때가 무르익어야지 의욕과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이다.

그러나 잃은 것만은 아니었다. 병원과 지압원, 건강캠프, 한의원 등을 전전하였으나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휴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즈음 아는 분의 소개로 부평 활법원을 찾은 지 20일째 되는 2000년 8월 말,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던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언제 그랬나 싶게 멈춘 것이 아닌가! 그때의 기쁨이란 형언하기 힘들지만 아마 ‘합격’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신체적으로는 비록 건강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마음과 사랑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묻어나는 소박함 속에서 살아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저 고맙다고 느낄 만큼 삶의 소중함을 느꼈으니 어쩌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지 모른다.

덜 아문 건강을 추스르며 주역, 기문둔갑 등 동양철학에 심취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2년의 세월을 보냈고 2002년 1월,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험 발표는 2년 전의 그 지독한 통증의 기억이 되살아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앞섰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시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픈 심정뿐. 그러나 어쩌랴! ‘이번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히 하자’고 마음을 다잡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 또한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되새겨지고 잊혀졌으리라 생각했던 내용들이 기억의 저 밑바닥에서 일렁이며 다시 솟아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나 3월 접어들자 소강상태인지 공부는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하기만 하고 옆친 데 덜친 격으로 공부하던 곳도 비워 줘야 했으니 심경이 착잡하기만 했다. 다행히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장소를 다시 구함으로써 점심 시간에 국선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저녁식사 후 의원회관 연못 주위를 산책하는 망중한을 즐기며 심기일전. 그러면서도 토요일은 치료 받고 일요일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산과 물을 찾아 커다란 주제를 저 멀리 물결 위에 아니면 산에 던져 놓고 마음으로 공부합네 하고 도사 흥내를 어설픈게 내보았으나 잘 될 턱이 없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온다. 그때 자칫 포기해 버리고픈 유혹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킨 것은 ‘공부 그 자체에 의미를 둘 뿐 합격은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일종의 부산물 같은 것’이라는 화두였다. 그뿐이라! 많은 부분을 이끌어 주셨던 선배 계장님, 건강과 강한 자신감을 함께 불어 넣어 주셨던 활법원 원장님, 이른 새벽 절에 가서 말 없는 기도로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부모님, 그 밖에도 많은 선배님, 동료, 후배들의 소리 없는 성원이야말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시험일, 아침에 일어나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평소에

는 듣지 못하던 까치 소리가 나를 반긴다. 좋은 조짐이라 생각하니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가볍다.

그런데 ‘이럴 수가……’ 가슴 저편으로부터 과도처럼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단전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펼쳐든 시험지, 비교적 평이한 문제로 평소 관심 있게 다루어 왔던 주제들! 그러나 너무 자만했는지 시간은 10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답안 쓰는 손은 힘만 들고 한없이 느리기만 하니……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다짐과 함께 젓 먹던 힘까지 쏟았건만 아는 것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회한으로 눈물마저 핑그르르 돈다.

그랬다. 그것은 못난 내게 내려 준 신의 선물이었다. 합격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의 얼굴이 오버랩 되며 마냥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새어 나온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힘이 결집되어 얻어진 결과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시 한 번 못다 드린 감사의 마음을 이 지면을 통해 듬뿍 전해 드리고 싶다. 한편 ‘運 7, 실력 3’이라는 말이 새삼 나를 지칭하는 말인 것만 같아 같이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선배님, 동료 분들께는 미안함으로 선뜻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건네기조차 힘이 든다.

교육이다, 회의다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2002년의 끝자락을 넘어 2003년 새해 벽두이다. 과연 6개월 남짓된 신참계장으로서는 말은바 소임은 제대로 해냈는지 모르겠다. 행정학에서 나오는 글렘비위스키의 견인 이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후 부하직원을 이끈다는 이론-을 마음 속에 새기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 애썼던 신참계장의 작은 몸부림이 어찌면 방향을 모른 채 유명하는 올챙이 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새삼 부끄러움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유난히도 변화가 많았던 2002년 한 해를 조용히 반추하며 반성과 함께 좀더 나은 내일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졸필이나마 국회사무처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시찰 훈련에 관한 素懷를 회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해 외 시 찰 보 고

조 영 기

프롤로그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바 그의 일환책으로 외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를 현장답사함으로써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입법보조 활동에 기여하고 그와 더불어 신임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된 이번 해외시찰은 개인적으로도 승진이 가져다 준 커다란 선물 중 하나였다.

상세 보고 및 소감

I. 덴마크

♣ 7월 8일(월) : 덴마크 코펜하겐

(1) 약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431km²의 작은 나라 덴마크는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오스트리아의 오페라하우스와 프랑스 제3 개선문을 디자인한 이른바 ‘덴스크디자인’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공업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2) 바이킹의 후예인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농과 공업디자인 등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덴마크는 마약 구입을 위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마약을 지급하고 있고,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할 만큼 자유의 나라이다.

한편 집 계단에까지 세금을 물리고 심지어는 소득의 76%까지 세금을 물릴 정도로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반면 그것으로 교육비와 병원비 등이 거의 무료이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잘 이루어져 이 나라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을 감수한다.

사회보장 제도가 미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바로 이 점이 가장 먼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북유럽 국가들 모두 휴가를 5~6 주씩 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다.

(3) 국회의사당은 옛 왕궁에 자리잡고 있으며 입구에 있는 4개의 ‘고뇌하는 석상’은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일깨워 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모두 179명인데 수상을 포함, 35%가 여성 국회의원으로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존중되는 듯해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부러움 섞인 아쉬움이 남는다.

(4) 스칸디나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 하겐은 ‘물건을 사고 파는 항구’라는 뜻이다. 많은 공원과 푸르스름하게 산화된 중세의 구리 지붕으로 흔히 ‘green city’로 불리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도시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집들은 예쁜 꽃들로 꾸며져 그들의 정서가 묻어나는 듯 하다. 이들은 환경에도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조량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햇볕이 들라치면 일광욕을 위해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훌훌 옷을 벗어 던진다. 이른 아침 바다로 산책 나간 우리 일행은 이런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덴마크에서는 햇볕이 귀해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한다.

(5) 안데르센 동화에서 유래된 작은 인어상과 ‘덴마크의 강인한 어머니상’을 상징하듯 황소 네 마리를 몰고 가는 역동적인 여신의 조각상이 서 있는 개피온 분수를 보며 별것 아닌 것을 코펜하겐의 명소로 발전시켜 세계 관광시장에 내놓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관광산업이 필히 배워야 할 부분인 듯하다.

(6) 궁전의 내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 덴마크의 깃발을 꽂아 여 왕이 근무하는 건물임을 표시한다는 아마리엔보 궁전은 광장의 근위병과 조화를 이루어 이 나라가 왕국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7) 화려하지는 않으나 견고하면서도 싫증나지 않는 단아한 덴스크 양식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룬투비의 교회는 유달영 박사가 우리의 4H 운동의 단초를 삼았다는 곳이라 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개신교인 마틴루터교의 그룬투비 목사는 교회 봉사활동의 지평을 넓혀 덴마크 사회보장 제도의 시초를 열었다고 한다.

II. 노르웨이

◆ 7월 9일(화) : 오슬로

(1)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장관인 대자연 속의 노르웨이! 바이킹 시절엔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을 텐데 지금은 천혜 자원의 보고로,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났으니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새롭게 창조시킨 노르웨이 민족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돋보이며,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들의 삶이 은연중 자연 속에서 새록새록 느껴진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관광산업의 발전도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는 그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풍광이 좋은 곳이라고 알려지면 음식점이나 관광숙박업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어야 할 텐데…….

(2) 수많은 세월을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다가 1905년 독립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중심가에 노벨타운이 있으며 오슬로 시청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 장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마스크를 통해 알려진 도시라 그리 낯설지 않은, 뜻깊은 곳으로 웬지 모를 친근감과 뿌듯함마저 느껴진다. 더구나 월드컵 덕분으로 노르웨이 야시장에서 “꼬레!”를 외치는 상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유

료관람 성당에서 4강 진출 기념으로 무료관람을 시켜 주었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하늘의 성전’이라 불리는 오슬로는 오백여 년 전 북유럽을 주름 잡던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로 ‘바이킹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원래는 빈민촌이었으나 빈민촌 발전을 위해 일부러 빈민가 중앙에 시청을 건설했고, 지금은 가장 변화가로 발전했다고 하니 정말 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3) 노르웨이는 165명의 의원으로 몇 년 전에는 여성 국회의장이 선출되어 북유럽의 여성과위를 실감케 하였다. 여성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이 섬세하게 민생을 잘 다루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인들은 위낙 조상과 명예를 귀하게 여겨 부패가 거의 없고, 외채 또한 없으며, 거지가 없는 나라로 깨끗한 정치가 펼쳐지는 나라이다.

(4) 바이킹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된 3척의 바이킹선은 9세기 초 건조된 것으로 그 당시 바이킹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오세베르그호는 여왕의 관으로 사용되었다.

우리에게는 ‘바이킹’ 하면 ‘해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생활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 많은 업적을 이룬 측면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이킹 후예들의 강한 바람이다.

(5)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193점에 이르는 작품으로 조성된 비겔란 조각공원은 인간의 생로병사, 윤회 등 동양적 사상이 물씬 풍겨지는 곳이다. 인생의 고뇌를 잘 표현한 ‘인생의 굴레’라는 조각탑은 너무나 인상 깊었고, ‘화난 아이’상은 절로 웃음이 지어질 정도로 아이의 표정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6)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한국선수들을 위해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며 목청 높여 응원했다는(노르웨이에서 산지 27년) 중년 아줌마 가이드의 설명으로 새로운 감동이 전해지는 릴레함메르의 스키점프대를 보노라니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스키를 가르칠 정도로

노르웨이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스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아련히 바람처럼 스쳐간다.

노르웨이는 초등학교 6년 내내 담임이 동일하여 아이들을 인성으로 가르치고 초등학교 내내 성적표가 공개되지 않으며 고등학교는 전공을 위해 선택한다고 한다.

(7) 노르웨이 산모는 80%의 pay를 받으며 1년 동안의 산휴를 갖는다. 열달 산휴면 100%의 pay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분만 시 국가에서 돈을 지급한다니 우리나라 산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또한 해저에서 원유가 나와 부유하나 예산편성 시 원유 판 것은 2세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그들의 강한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7월 10일(수) : 옌파르의 숲과 호수, 브릭스달의 푸른 빙하

(1)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방한과 방서 목적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일종인 이색적인 잔디지붕, 길 여기저기 풀 뜯는 양떼들이 우리 일행의 버스를 맞이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산들의 행진! 옌파르의 숲과 끊임없이 펼쳐지는 맑고 넓은 호수는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 준다.

(2) 1년설이 녹아 흐르는 하늘색과 만년설이 녹은 초록빛이 감도는 계곡물의 힘찬 넘실거림, 그리고 신선이라도 나올 법한 뽕오얏 물안개의 절묘한 조화! 2500여 년 되었다는 하늘빛 빙하와 흰색의 1년설이 어우러져 조금씩 흘러내리다 드디어 장엄한 폭포를 이루며 산과 산 사이 계곡을 분수처럼 거대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브릭스달 빙하의 장엄한 광경은 그 자체가 오묘한 예술품이다. 그곳을 마차로 오르노라니 마치 2500년 전으로 회귀한 듯한 착각이 일어나고…….

◆ 7월 11일(목) : 가우팡에르 송내 피요르드(협곡)

(1) 프롬을 출발하여 구드방엔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총길이 205km

의 송네 피요르드는 빙하시대에 빙하의 압력으로 깎여진 U자형 협곡이다. 계곡 상단에서 몽롱한 꿈인 듯 뽀얀 물안개를 피우며 천천히 떨어지는 폭포는 한편의 詩이런가! 한 잔 마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만년 빙하물은 하늘에서 내려 보낸 감로주런가!

(2) 빙하폭포 물은 많은 양의 생수와 수력발전이 가능하여 ‘물의 전쟁’ 시대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전기와 수도산업이 발전되어 깊은 골짜기에도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 그러나 세금징수를 피해 피요르드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 세금은 어느 누구도 달갑지 않은 모양!

◆ 7월 12일(금) : 베르겐의 그리그 생가 및 박물관

(1)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이며 세계 미향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베르겐은 언덕 위의 집들이 알록달록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창문 문화, 즉 예쁜 커튼과 형형색색의 갖가지 꽃 장식은 아마도 백야현상과 1년 365일 중 맑은 날은 채 100일도 안 될 정도로 햇별이 그리운 북유럽의 기후로 인해 생겼겠지만 마치 그네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2) 〈솔베지송〉과 〈페르퀀트〉 등 대표작을 남긴 그리그의 생가는 ‘트롤하우겐’으로 불리우며 바닷가 근처의 언덕에 자리하여 작곡이 절로 되었을 듯!

III. 스웨덴

◆ 7월 13(토) : 스웨덴 스톡홀름 왕궁, 감라스탄, 바사 박물관, 시청사

(1) 9세기경 바이킹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스웨덴, 한때는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기도 했으나 11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2) ‘통나무 섬’이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물 위의 도시

로 '물위의 아름다움'이란 닉네임처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 중 하나이다.

스웨덴은 특히 노벨이 태어난 곳으로 노벨은 350여 개의 발명품을 통해 많은 재산을 일구었으며 그것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 사후에 화학·물리학·의학·문학·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고,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만은 노르웨이에 넘겨주고, 1901년부터 스웨덴 정부에 의해 경제학상도 수여하고 있다.

시청사 내부의 '푸른 방'은 매년 12월 10일경에 열리는 노벨상 수상 직후 열리는 만찬장으로 유명하다.

(3)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조되었다가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 바사호는 1956년에 발견되어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그 당시 스웨덴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IV. 핀란드

◆ 7월 14(일) : 핀란드 헬싱키의 시벨리우스 공원, 원로원 광장, 암석교회

(1) 환상적인 일몰을 뒤로 하며 곧이은 일출, 밤새 바다를 달려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하니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던 다른 북유럽에 비해 밝고 투명한 여름 특유의 햇살이 우리를 반긴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20년에 이르러 핀란드 공화국으로 독립했는데, 국토의 70%가 산림인 까닭에 펄프 등 임업과 조선업이 발달했으며 IT산업도 발달했다.

(2) 핀란드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은 6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국회의원은 200명으로 그 중 74명이 여성의원이다. 정당은 8개 정당이 난립, 사회민주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3) 핀란드인은 스웨덴인이 전해 준 유럽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수준이 높

다. 특히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핀란드가 자랑하는 음악가이다. 시벨리우스공원의 파이프로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시벨리우스 두상이 인상적이며, <핀란드어>는 그의 대표작으로 러시아 식민시절 민족말살정책 시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고 한다.

(4) 원로원 광장은 국교인 루터교를 대변하는 헬싱키 대성전교회, 정치의 상징인 정부종합청사와 수상집무실, 한쪽으로는 교육을 상징하는 헬싱키 국립대학 본관건물, 경제를 상징하듯 대성당 앞의 가게들이 정사각형으로 배치됨으로써 핀란드를 상징하는 곳이다.

중앙에는 핀란드어를 되찾아 준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있는데 1917년 독립 이후 시 외곽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으나 러시아대사의 강한 압력으로 무산되었는바 오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핀란드로서는 되도록이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인 듯 싶다.

(5) 기존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암석으로 독특하게 디자인된 최첨단의 암석교회는 천연 암석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의 음향효과가 우수하여 음반작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파이프 오르간은 매우 이색적이다.

V. 러시아

♣7월 15(월) ~ 16일 :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 여름 궁전, 카잔성당, 피터폴 요새

(1) 핀란드역에서 러시아 기차로 7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동토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의 구 수도(레닌그라드) 상트 페테르부르크!

냉전기에 사회주의의 맹주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던 러시아는 1991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과 함께 자본주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옛날의 영화는 사라졌고,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몰락, 탈냉전시대를 열게 되는 장본인

이 되었다.

(2)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정치·경제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이나 러시아적인 과거 권력의 흔적과 서구사회의 모습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77배, 미국의 1.8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바 특히 동쪽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3)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서유럽으로 가는 통로’라는 호칭에 걸맞게 서양적인 특징들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6~7월이면 볼 수 있는 백야의 광경은 가히 ‘북쪽의 베니스’라고 칭송할 만하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혁명 당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시절 ‘레닌그라드’를 거쳐 현재는 과거의 명칭이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회귀했는바 이를 통해 이곳이 동란과 혁명의 굴절 많은 역사의 장이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4) 러시아의 ‘베르사유’, ‘러시아 분수들의 수도’라고 불리는 분수궁전(페테르고프)은 황제의 가족들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이 여름을 보냈던 곳이다. 140개의 분수들로 이루어진 계단식 폭포의 화려한 자태는 아름다운 궁정의 모습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로마노프왕조의 영화로웠던 시절이 떠오르며 권력의 성쇠를 실감케 한다.

표트르1세(피터대제)의 ‘기마상’에서는 말에 밟힌 뱀으로, 분수궁전(위 공원과 아랫 공원으로 나뉘어져 있음) 뒤편의 아랫 공원에 소재한 ‘삼손’의 분수에서는 입 찢겨진 물고기의 모습으로 스웨덴을 표현한 것을 보면 스웨덴과 23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졌던 러시아인들의 스웨덴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5) 94개의 콜린도 양식 기둥으로 둘러싸인 까잔성당은 성당이 완성된 후 나폴레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축복의 성당’으로 통하며 러시아군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6) 적의 급습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1703년 세워진 페터 앤 파울 요새는 18세기 중반부터는 형무소를 겸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요새로 알려져 있고, 벽면에는 물에 잠겼을 당시의 수면을 표시해 놓았다. 요새 옆 파울대성당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첨탑으로 유명하다.

◆ 7월 17일(수) : 모스크바 붉은 광장, 크렘린, 모스크바대학

(1)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를 통해 도착한 모스크바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구 소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크렘린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세계 제2위로 물가가 비싸며, 러시아 돈의 90%가 이곳으로 몰린다니 상트 페테르부르크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진다.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이른바 10 대 90의 사회라 할까?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멘델의 화학기호가 모두 나온다고 할 만큼 많은 양의 잠재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앞지를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가이드의 말에 왠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또한 스탈린 30년 통치 시 일종의 3S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권장 덕에 발레와 차이코프스키 음악 그리고 푸쉬킨, 톨스토이, 토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세계적인 문학가 등 예술문화가 발달해 있어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일상처럼 발레를 관람하며 우리나라 중산층급 이상의 문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니 러시아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문화향수층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모스크바 경찰과 교수의 월급은 월 120\$~170\$ 수준으로 경찰이나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하며, 교수의 경우 하나의 연구라도 성과가 있으면 pay가 2만\$에서 5만\$로 급등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120\$의 월급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아했는데 사회주의 체제라 정부에서 집 주고, 차 주고, 계급에 따라 별장까지 준다는 설명을 들으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2) 모스크바 곳곳에서 눈에 띄는 삼성과 LG의 로고를 보니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느껴졌다. 또한 월드컵 경기 때 우리나라 축구팀과 붉은 악마의 응원도 러시아인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욱 넓혀야 될 것이며, 통일에 있어서도 주변 4강 중 하나인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3) 한편 공산주의 시절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마음 속에 늘 남아 있던 러시아정교의 아름답고 장엄한 많은 사원들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정교의 십자가는 기존 십자가와는 사뭇 다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4) 러시아의 상징인 쌍두머리 독수리상, 독수리 머리의 왕관은 왕의 권위, 왼쪽은 국무총리, 오른쪽은 대주교를 상징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잘 표현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통령제로 1차 중임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절대투표제로 유권자의 50% 이상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2%의 득표로 국민적인 호응과 함께 제2의 표트르대제를 꿈꾸며 국가의 경제력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한다.

(5) 200년간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몽골의 카잔 한을 항복시킨 기념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 바실리 사원은 각양각색의 색채와 무늬를 자랑하는 9개의 양파형 돔 지붕으로 이루어진 그리스 정교 사원으로 붉은 광장 진입로에 있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이 갔을 때는 아쉽게도 한쪽이 한창 공사 중이었다.

(6) 모스크바의 심장부에 위치한 크레믈린은 러시아어로 ‘요새’를 의미하며, 15세기의 장대한 교회에서부터 현대적인 의회까지 다양한 건물이 있다. 또한 레닌, 스탈린, 후루시초프,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프가 여기에서 서기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조금은 음흉스럽고 카리스마를 지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빗대어 ‘크레믈린’이라고 하는데 의

외로 크레믈린 안에는 많은 건물들과 보물 등 러시아 문화의 정수가 밀집되어 있었다.

(7) 그 외 지하 100m의, 아찔할 만큼 깊이 뚫린 모스크바 지하철의 승차 경험을 통해 그네들의 전쟁대비 태세를 엿볼 수 있었으며 교통문화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유럽 화장실이 대부분 유료여서 좀 지나치다 여겨졌는데 모스크바 지하철 역의 화장실은 1유로 화를 받아 우리 일행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8) 모스크바대학 건물을 배경으로 해외시찰의 종지부(?)인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모스크바대학원의 정치학부에 적을 둔 가이드로부터 모스크바대학의 학제나 시험, 학비 등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에필로그

7월 17일, 현지시간으로 오후 10시 20분발 서울행 KAL기에 몸을 싣고 모스크바공항을 출발하니 그동안(11박 12일간)의 여행에 대한 감회를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찰을 통해 각 나라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생생한 현황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의 현장체험은 앞으로 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기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외시찰에 대한 상세보고와 소회를 접고자 한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3담당)

준비와 기쁨의 삶을 위한 첫 마음

조성품(아오스딩) 신부

한 해의 마감과 더불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성탄 소식’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서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아기 예수 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셉. 그렇지만 천사의 알림으로 그 아기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탄생의 순간에는 가장 친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친밀했던 분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고, 낳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문안을 드리러 온 세 명의 박사들에 대해서도 성서는 알려 줍니다. 한 어린 아기의 탄생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스쳐지나갑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했고 함께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 물음의 대답을 얻게 됩니다. 올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에 내가 할 역할은 ‘준비와 기쁨’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와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성소 - 하

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아기 예수를 둘러싼 인물들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충실히 응답했기에 준비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한결같이 살기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마음'을 항상 떠올려보았으면 합니다. 요셉,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만남의 순간까지 머나먼 여정을 한결같이 걸었습니다. 것처럼 한결같이 걸을 수 있었던 힘은 탄생 소식을 접했던 그 순간에 지녔던 '첫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기도문이 적힌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이 어두우셔서 기도문들을 큰 글씨로 옮겨 적어 바치셨답니다. “신학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큰 은총으로 신학생들이 항상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피 주옵시고 어려운 일을 참고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손자 조 아오스딩도 함께 특별하신 강복을 주시어 당신의 참다운 사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할머니의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제로서의 삶에 응답했던 그 '첫 마음'을 떠올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첫 마음'을 간직하면서 힘차게 떠나보려고 합니다. 요셉,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지녔던 그 '첫 마음', 할머니께서 일깨워 주신 그 '첫 마음'을 간직하고서 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음성인식기에 관해서

이 동 준

1. 음성인식이란

몇 년 전 핸드폰 광고 중에 멋진 여자 텔런트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집으로 전화를 걸 때 ‘우리-집’이라고 말하면 바로 집으로 전화연결이 되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초보단계의 음성인식이라 할 것이다.

음성인식기관, 말 그대로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하여 기계작동, 문서작성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사람의 말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음성인식기 사용동기

2000년도에 호주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음성인식기를 사용해 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 사용하는 국가가 많아 영어 음성인식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거의 범용되다시피 하여 그 가격도 저렴하다고 했다. 그에 반해 한글 음성인식기는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수요가 적은 관계로 그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때문에 아직은 ‘우리-집’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사람이 말을 하면 PC가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번문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속기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워드작업을 하게 되면 심한 손가

락 통증을 겪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전화버튼을 누르기도 어려워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사진촬영 등 여러 가지 진찰을 한 결과 무리한 워드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마모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빨리 연골이 마모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조금 더 지나면 골절이 올 수도 있다, 연골은 재생되지 않으니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통증완화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해소될 것이다’라는 대답만 들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기사라 워드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담당의사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러면 직업을 바꾸세요” 하는 것이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었다.

매일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던 어느날 곧 한글 음성인식기가 출시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원고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나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다음날 나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에 소개되었던 음성인식기는 01. 10. 9 한글날 기념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그 전에 H호텔에서 시연회를 갖는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시연회에 참석해 보니 음성인식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글 음성인식기 시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 구입신청을 해 놓고는 곧 받아 보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0월 말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회사 측에 연락을 해 보니 프로그램에 약간의 오류가 생겨 보완작업 중이며 11월 초에는 배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 11월 말에서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다.

3.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

(1) 윈도우 실행 기능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실행명령을 음성으로 얘기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글실행’이라고 얘기하면 한글프로그램이 열리고 ‘인터넷 실행’이라고 말하면 인터넷이 실행된다. 인터넷 주소도 자판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알파벳을 토박토박 부르면 그 사이트로 갈 수 있다.

(2) 워드작업

한글프로그램(아래한글)에서 워드작업은 처음에 학습자의 목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약 30분 가량 인식기가 요구하는 단어와 어구를 학습시켜야나운서와 같이 일정한 톤과 속도로 낭독을 하면 1분에 약 200자 정도를 인식할 수 있다. 음성인식기에 학습을 계속 시키면 300자 정도도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나는 열심히 학습을 시켰다.

처음 인식기로 20분 속기한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은 그런 대로 인식을 잘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나 인명, 지명 등은 거의 인식을 하지 못했다. 처음이라 그런 것이겠지 생각하고 중간 중간 학습을 시키며 번문을 해 나갔다.

번문 중 학습은 인식기 프로그램상의 툴바의 ‘학습’을 클릭하면 네모상자가 나타나는데 인식기가 잘못 인식하는 단어나 어구를 거기에 입력하고 그것을 세 번 읽어 주는 것이다. 보통 실무 속기사들이 20분 속기한 것을 번문하는 데는 1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인식기를 사용해 중간 중간 학습을 시키면서 번문을 끝낸 후 시간을 보니 약 2시간이 지났고 목도 아프고 입도 바짝 타 들어갔다. 그나마 이것으로 번문이 끝난 것이면 다행인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인식된 것들은 다시 교정을 해야 했다. 교정시간을 거쳐 번문을 완전히 끝낸 다음 시간을 보니 3시간이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첫 술에 배가 부르랴’는 선인들의 말씀을 새기며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학습시키면서 계속 원고를 해 나갔다.

몇 달을 학습시키다 보니 인식기가 어떤 단어를 잘 인식하고, 어떤 단어를 인식하지 못할 것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어 인식기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단어는 낭독을 하고 인식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단어는 PC 자판기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였다. 그렇게 했더니 번문속도가 약간은 향상되었다.

그렇게 하기를 한두 달,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런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감기가 걸렸거나 전날 음주가무(?)로 목이 약간 쉰 날은 잘 인식하던 단어들까지 이상한 단어로 표기가 되곤 했다.

4. 음성인식과 속기

현재 출시된 음성인식기는 학습자 1인의 음성만을 인식하며 그것도 거의 같은 톤, 일정한 속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발언내용에 따라 인식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같이 평이한 내용을 낭독하면 거의 90% 이상 인식을 하는 반면 법전 등과 같이 전문서적을 낭독하면 80% 이하의 인식률을 나타냈다. 학습을 충분히 시켜서 90% 이상 인식을 하면 번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번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인식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단어는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표기해 주면 좋으려만 가장 유사한 단어로 표기를 해 주기 때문에 자칫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히 속기원문과 대조하거나 녹음테이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단어로 채워져 있을 때나 시간에 쫓기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일쑤다.

예를 들어 ‘개혁’을 ‘계획’으로 잘못 표기해 놓은 것이 문맥상 차이가 많이 나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국가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를 ‘국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로 해 놓으면 문맥상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애를 먹었다.

현재 한글 음성인식프로그램은 속기를 대신하거나 번문용보다는 자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다중음성인식기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속기의 영역을 회의록 발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영역까지로 확장시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다.

(협회 총무부장)

21세기의 화두는 에너지 전환

정 현 정

중양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다양한 결과

1. 시작하며

전 세계인이 지난번 9?11 테러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핵발전소를 공격한다면 꿈쩍없이 대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핵과 관련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핵에너지를 관리하는 데에는 군사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핵의 역사는 사고의 역사라고 한다. 왼쪽의 사진은 1979년 3월 28일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 발전소 모습이다. 이 사고는 1978년 12월, 이 발전소의 가동 후 불과 4개월만에, 그것도 최첨단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일

어난 것이어서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믿었던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문제는, 사고가 나서도 발전소 운영자와 정부는 방사능 유출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나서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주변 23개 학교를 폐쇄한 다음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5일 동안 계속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자로는 단 30초만에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기형아 출산, 암 발생의 증가와 같은 각종 방사능 재해에 시달렸다. 피해 주민들은 원자력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았으며, 실례로 방사능 노출로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게 된 가족은 100만 달러를 받기도 하였다.

태양열이나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과는 달리 핵에너지는 중앙집중적이며 대규모로 관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에너지의 관리상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차단하게 된다. 실제로 핵발전소를 가동시키려고 했던 나라들에서는 발전소 내부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청부살인, 사기, 협박, 폭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출경로를 차단하려 했던 어두운 과거도 가지고 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보내기 위해 핵발전소를 세우려고 주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속이고, 감시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지역민들을 이간질해 분열시키면서 결국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방사능으로 인한 암 발생, 유산, 사산, 기형아 발생률 증가 등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비인간적 연료인 핵에너지이다.

핵발전소의 대형사고는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대형 핵사고가 일어나면 수십년간, 아니 수백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스리마일 핵발전소는 2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핵의 특성상 근로자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작업을 하지 못한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가 한번 나면 번거로운 작업복 입기를 끝낸 후 짧은 시간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작업에 대한 성취감은 느낄 수가 없다. 요즘은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방사능 피폭 허용수치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모대학교 실험실 인력들이 우리의 핵발전을 책임진다는

사실조차도 이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핵에너지는 자국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갖춰진 곳은 프랑스, 영국 등이기 때문에 핵발전 시설을 중단할 경우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이들 나라들의 이익과 맞물리게 되어 자국의 의지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도 없다. 독일의 경우, 원자력 포기 수순의 일환으로 1년안에 재처리를 금지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조스팽과 블레어 총리가 나서서 ‘그럴 경우 재처리를 위해 현재 라 아그와 셸러필드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되돌려 보내고, 또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수십억 마르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핵포기 결정 시기를 늦춰야만 했다.

올해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초점은 다시 원자력 분야로 돌아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는 모두 1222건이고 이 중 원자력 분야 자료는 339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울진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사고와 이달 초 제기된 월성원전 1호기 부등침하의 안전성 여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풍에 밀려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옆 사진은 한국반핵운동연대 회원들이 6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핵발전소 불안의 날’을 선포하는 집회를 열고 월성 핵발전소의 지반 부등침하를 경고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다.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소는 41.7% 늘어난 반면 근무인력은 도리어 3.4% 줄어든데다 그나마 정원에 못미쳐 원전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7기로 지난 97년(12기)보다 5기가 늘었으나 근무정원은 5,391명에서

5,206명으로 185명 줄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보다 177명이나 적은 5,02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원전의 고장원인 중 인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4%나 된다고 한다.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 지난 98년 이후 3?4호기가 추가됐으나 정원은 1451명에서 1103명으로 대폭 줄었고 그나마 현원은 이보다 43명이 적은 106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유인원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약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제1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전남도에 핵폐기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일부 선진국이 포기하고 있는 원자력 전력공급 방식을 즉각 탈피,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부도 일련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시도가 지역정서와 해양?환경?농수축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핵에너지 시설을 환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핵시설이 들어선 곳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거나, 보고를 했더라도 허위보고, 누락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핵에너지를 쓰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사고에 대한 비밀주의는 핵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그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과 물에 전달되어 나타날 방사선 오염으로 인한 지구 전체적인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게 되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2. 맺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스리마일 원전사고 등 굵직굵직한 사고들을 보면서

그렇게 치명적인 원자력 발전을 왜 여전히 고집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원자력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핵발전에 연관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지구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옹호하고,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 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핵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오만과 아집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력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지구온난화도 막고 환경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이 자연을 계속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누린 이 복된 자연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원망스런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내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열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 다른 풍력발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모든 시책들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한시라도 빨리 재생가능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공공건물에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의 노력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은 결코 이루어지기 힘들고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의회사무과)

小菊'''

민 흥 식

운동 구석 구석마다 小菊이 만발입니다` 셔틀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 담배를 태우면서 셔틀버스 정류장 옆 조그만 화원에 지천인 小菊들을 바라 봅니다` 한 단에 2000원````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小菊 한 단을 손에 쥐고 다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씨~익 웃으며 줘버려````? 생각이 담배 연기따라 청명한 하늘위로 피어 오르다가 그 조그만 화원 앞에 멈추어 선 노부부에게서 멈춥니다`

팔짱을 끼었습니다` 두 분 다 편한 운동화에 간편한 차림으로 보아 일찍 저녁을 드시고 산책 나오신 모양입니다` 그 할아버님(?) 약간은 쭈뼛 쭈뼛 하십니다` 할머니님(?)은 열심히 이리 저리 小菊 사이로 손을 놀리십니다` 노오란` 그리고 보랏빛 小菊 두 단이 선택 되어 집니다` 그냥 신문에 둘둘 말아 달라 하십니다` 小菊 대접하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흙` 흙흙`` 흙흙흙```` 헛기침을 하시는 할아버님 옆으로 할머니님이 바짝 다가서십니다` 할아버님께 다가서는 쪽의 손에 小菊다발이 들려있습니다` 小菊다발이 엉덩이께에 걸리자 할머니님 놀라십니다` 놀라 움짚` 하시는 할머니님을 할아버님 슬쩍 쳐다보시더니 小菊다발을 권 할머니님 손을 슬쩍 잡아 약간 앞으로 내미십니다` 할머니님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하십니다` 할아버님```` 헛기침과 동시에 주위를 둘러 보십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재빨리 담배를 뒤로 감추고 슬쩍 눈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줄기 중간까지 적셔진 물이 부담스러웠어` 벌써 이틀째 이려고 있으려니
축축한게``` 빨리 그 누군가가 날 사서 이쁜 꽃
병에 꽂아 주었음 좋겠어`

이왕이면 예쁜 아가씨였음 좋겠어` 왜``` 어느 투박한 스킨 냄새의 손을
가진 남자가 나를 사다가 등뒤에 감추고는 불 쭉 내미는``` 마지막에는
예쁜 아가씨가 나에게 코를 들이대 며 나의 향기를 맡는```^^

그리고서는 그들의 살가운 대화를 엿듣는 재미도 쏠쏠할거 같아^^ 어느
카페 부드러운 커피향 나는 두 잔의 커피 잔 사이에 나를 뉘여놓고 오가
는 눈길을 곁눈질 하는 것도 재 미있을 것 같고^^ 나를 싸는 포장은 아무
려면 어때? 어차피 다 벗겨지고 예쁜 꽃병에 꽂아질텐데`

어라```? 손님이 왔나봐` 주인 아저씨가 다른 꽃을 다듬다가 급히 일어
서는걸 보니``` 예구~ 힘들다`물 속에서 몸을 돌리 는게 쉬운 일은 아
니거든`

그런데``` 손님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네` 무슨 화초 사러 오셨나봐`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은 꽃 잘 안 사거든` 오늘도 난 안 팔릴려나봐` 오
늘은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안그러 면 내일은 나```시들지도 모르는
데`

어? 할머니 손이 나를 쓰다듬어``` 할아버지는 그냥 멀뚱히 서 계시구`
참내``` 설마 저 할머니가 나를 사려는건 아니겠 지? 이건 아닌데``` 내
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시나리오야```

이리 저리 할머니 손을 피해 몸을 비틀었더니만 그 할머니 싱싱하네` 이
러면서 움켜잡으시는거야``` 이런``` 그게 아닌 데` 그래서 옆에 노오
란 친구를 슬쩍 떠밀었더니만``` 역시 이쁘다 하시면서 쪽 뽑아 드시
네``` 휴~우^^

그 때 옆에 서신 할아버지 왁 하나는 정 없어^^ 으잉? 나 를 또 왜 잡으셔~ 아까 이 놈이 싱싱했어^^ 이 할머니가 싱 싱한거 되게 찾네`

할아버지가 노오란 친구와 나를 그냥 신문지에 싸달라고 하 시네^^ 나 도 비닐보다는 차라리 신문지가 나아^^ 줄기의 물 기들을 신문지가 다 빨아들이거든` 노오란 小菊친구는 별 말이 없어` 하기야 저 친구는 수명이 거의 다 했어`

할머니가 줄기 아래부분을 짝 쥐시는데 힘이 별로 없으신가 봐` 물론 팔려가는게 내 팔자려니 하지만 남자 손에 들렸다 가 이쁜 아가씨 손으로 가야하는게 내 생각인데 어찌다 이 렇게 되었는지^^`

그 때 옆에 할아버지 손이 가만히 덮어 오는거야` 할머니 손을 쥐더니만 날 약간 앞으로 들고는 할머니를 옆으로 끌 어당기시네^^ 순간` 예쁜 아가씨 얼굴 확 날아가 버렸어` 어찌나 짜르르 내 작은 꽃잎들마저 떨리는 전율이 오던지`

주름살 패인 얼굴에 얽은 수줍음과 흐뭇함이 참으로 감동적 이야` 찬찬히 할머니 보폭에 맞추느라 가끔씩 깨금발 뛰시는 할아버지 얼굴의 진지함이 등뒤에 감추었다 불쑥 내미는 젊은 남자 얼굴의 상기됨 보다 더 멋져^^

난 말이야^^ 정말 젊은 커플의 손에 쥐어 꽃을 만개하고 싶 었다구` 그런데` 그런데말이야^^ 오늘 이렇게 주름은 좀 있 지만` 뜨거운 체온이 아닌 약간은 깔깔한 손에 쥐어지는 것 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어^^ 왜^^ 그런거 있잖아` 자극적인 것보다는 스멀 스멀 천천히 퍼지는 따스함 같은거^^`

너^^` 그거 알아? 노오란 小菊 친구가 힘 없이 내게 말했어` 뭘? 우리 小菊들은 차라리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이쁨 받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우리 小菊을 안 좋아해` 받고서는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

년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바 보야` 온실에 날아 들어온 나비와 벌들이
웅성대는 소리도 못 들었니?

맞아``` 그랬었어` 화병의 물이 금새 지저분해진다며 뽑아 버 린다구```
차라리 화사한 한 송이 장미꽃을 좋아하는다구``` 그래도 난 옅은 화장품
냄새와 예쁜 화병에서 만개하고 싶 다구` 순간 다시 내 온 가지와 꽃잎
들이 짜르르~ 떨어져왔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계단을 오르
고 계셨어`

먼저 올라가요```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숨 한 번 쉬고 내 손 잡고
올라와` 다 왔어` 언제 또 이렇게 손 잡고 여길 올라와? 신문지를 통해
송송 땀이 전해왔어` 그런데``` 왜 이러지? 눈물이 나는거야``` 할아버
지가 한 손은 할머니와 함께 나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할머니의 다른 한
손을 마 저 잡았어`

나``` 결심했어` 예쁜 유리화병이 아니라도 좋아` 그냥 투박 한 중간 크
기의 오지 향아리라도 좋아` 그저 물이 지저분해 쳐도 꺼내어 버리지만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할아 버지 할머니의 저런 모습을 조금만
더 볼 수 있다면 좋겠어` 왜 사람들이 꽃을 사면서 화원 창가너머로 보
이는 노을이 나 황혼에 감탄을 하는지 알것 같아`

아``` 목이 말라` 나를 빨리 물에 넣어주었음 좋겠어` 예쁘게 안 꽃아도
좋으니```

한동안 나는 흐뭇했어` 하루하루가 여유로왔어` 할아버지는 바독책을 보
시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나물을 다듬고 계시고``` 두 분이 산책을 나
가시면 다른 꽃을 사 오실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는 했지만` 잔잔히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행복했어`

노오란 친구가 다 말라버려 고개가 꺾이자 할머니는 나를 물에서 꺼내주
었어` 그리고는 밀등을 조금 잘라 버리고 거 기에 리본을 다셨어` 내 자

리는 좀 더 높은 곳으로 바뀌었 어` 거실 벽에 걸린거야` 높은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을 보는 것도 좋아`^^`ㅎ뭇해`^^`

^^` 요즘은 목이 너무 마른것도 지나가고 내 자신이 말라가 는 것을 느껴`^^` 야위어져 가면서 만개한 내 꽃잎들도 점점 얇아지는 것 같고` 때가 되었나봐^^ 힘이 없어서 눈을 들고 있으려니 두 분이 산책을 다녀오시면서 손에 손을 꼬옥 쥐 고 또 한 다발의 小菊을 들고 들어오셨어`

싱싱했어^^ 얼마전 나처럼말이야^^ 저 小菊도 나처럼 ㅎ뭇한 시간들이 될 거야^^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어` 그런데 이 녀석 의 투덜거리는 말이 내게 흐릿하게 들려왔어` 하필이면 노 인네들이 날 살게 뭐야`^^` 아`^^` 힘이 없어` 이 녀석 아직 뭘 모르는군`^^` 한 마디 해 줘야겠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 바보`^^`

두 분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다 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이 할머니님의 보폭에 당신의 보폭을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쓰십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에 가까이 갑니다`

꺅가에 들리는 녹녹한 세월이 스며있는 두 분의 목소리가 정겨워 눈물이 내려 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꽃 사분지 오래 됐지요?

그러`^^` 다음 번에는 내가 예전처럼 장미 사줄께`^^`

아니에요`^^` 전 小菊이 좋아요`^^`오래 가잖아요`^^`

그러? 예전에는 장미가 최고라더니면`^^` 늙으니 이젠 좋아하던 것도 변하는겨?

변하긴요`^^` 그냥 그렇다는거지`

그럼 서방 좋은 것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거 아녀? 허허허`^^`

원` 이 양반이 별 소리를 다`^^`

小菊 한 다발 건네 줄 사람` 있으세요`^^`?

- 이리 기대`
- 그렇게 약하지 않아`
- 약해서 기대나? 사는게 그런게지`
- 사는게?
- 억새도 그렇고 유채도 그렇고`

억새의 황금빛은 어린 억새에게
 가만히 등 내어주는 어른 억새
 어깨에서 나오고 유채의 노오란
 꿈은 키다른 형제 유채에게
 가만히 손 내밀어 잡아주는
 손길에서 나오는거야```

- 별걸 다 진지하게 말하네```
- 말 없이 그냥``` 기대`
- 그리고 손도 잡고```
- 이 바보야```
- 사는게``` 이런거구나```
- 정말 이런거야?

가만히
 어깨 내어주는 한 해였음 합니다`

두손모음`

(가톨릭대 심리학과 3년)

여유당(與猶堂) 강가에서

송 해 경

이 봄 강가에 가 보셨나요? 오색백화(五色百花) 난분분(亂紛紛), 조팝나무 흰 꽃잎이 화려르르 강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강 건너 하얀 모텔에 눈이 부셔 이마에 손을 얹고 가늘게 눈을 뜨면 건너편 산은 아물아물 강물위로 떨어집니다. 손등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물결은 찰랑거리고 햇빛이 쏟아지는 수심 위에는 물 비늘이 반짝거립니다.

여기는 양주군(楊州郡) 와부면(瓦阜面) 능내리(陵內里), 옛 지명은 마현리(馬峴里), 마재라고도 합니다. 삼척, 깊은 계곡에서 발원한 샘물이 정선 아우라지를 거쳐 흘러드는 남한강과, 금강산 일만 이 천 봉 뿌리 밑에서 샘솟은 물은 인제, 양구를 거쳐 만나는 두물 머리, 양수리(兩水里)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먼길을 흘러와 팔당댐에서 만나 뒤 얼크러져 한바탕 뒹굴이를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강물을 바라보면 나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발은 굳게 땅위에 붙이고 마음만 멀리 멀리 흘러 보내지요.

허둥대던 아침 시간, 가족들이 모두 빠져나간 집에서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고 허기진 그리움이 몰려오면 이 강가로 달려옵니다. 비가 내리면 강은 어떤 모습으로 비를 맞을까, 또 책상 위에 앉아 글의 제목을 적어놓고 머리 속에 맴돌던 그 많은 생각들이 활자화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물안개 피는 가을녘, 바람 같은 역마살이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겨울 강물에 노니는 철새들의 모습은 이 강이 가지는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가슴에 어린 수심(愁心)을 흘려 보내기도 하고, 후련하게 트인 조망에 충혈된 시신경을 달래기도 하고, 끝없이 흐르는 강물의 속성은 자유와 여수(旅愁)의 쓸쓸함도 갖고 있지요.

앞강은 백 년 전에도 흘렀고 천 년 전에도 흘러들었지요. 이 강촌이 남다른 것은 이백 삼십 칠 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다산의 생가와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곳을 처음 찾은 것은 70년대 중반, 미관말직(微官末職)에 있을 때, 당시 저의 기관장은 다산(茶山)에 심취하여 직원들에게 목민심서(牧民心書)를 가르쳤습니다. 미니 스커트를 입고 한창 멋을 내던 스물 세 살의 나에게 애민(愛民), 위민(爲民) 사상은 참 생소했습니다. 부임(赴任)에서 해관(解官)까지의 12편에는 수신(修身)과 청검(淸儉)이 강조되어 있었고 자신의 능력보다 감투가 크면 눈을 가리어 자신과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고도 했으며 공직자가 아내 단속을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해 초여름, 이곳을 찾아 왔지만 강가 어디쯤에 있을 여유당(與猶堂)은 을축(乙丑) 대홍수 때 떠내려가 버렸고 눈이 부신 모래밭 너머 몇 채 안 되는 인가만이 이 강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를 배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찾아왔지만 우리 일행은 한 잔, 두 잔 농주에 취해 미루나무 그늘 아래 누워 꿈속에서 다산(茶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누엿누엿 해가 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제나저제나 귀가할 시간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여유당(與猶堂)은 뒤늦게 발견된 사진에 의해서 1974년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마는 관리상의 이유였는지 문이 굳게 잠겨 아쉽긴 하지만 쪽마루에 걸터앉아 안 마당을 들여다 봅니다. 18년 유배의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부인 홍씨의 그리운 한숨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세월은 젊은 부인에게 천형(天刑)이었겠지요. 물안개 속에 저벅저벅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꿈속에서 열 두 번도 더 보았겠지요. 애뜻한 그리움 끝에 시집올 때 가져온 빛 바랜 다홍치마를 아들 편에 강진으로 보냈더니 곱게 책표지를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고 나머지 천에는 매조(梅鳥)를 그려 외동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고통 속에 승화된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사랑은 눈물이 납니다.

흔들리는 시대는 명현을 다시 찾아보게 합니다. 재벌가의 호화분묘 때문에 조상의 시체가 목이 잘리더니 왕릉과 위인의 무덤에도 칼이 꽃히고 쇠말뚝이 박히는 수난시대입니다. 여유당 뒤 동산에는 위대한 업적에 비해 너무나 작은 부부 합장 묘가 정갈하게 서 있습니다.

1836년 9월 22일은 풍산(豊山)홍씨(洪氏)와 결혼한 지 60주년 회혼일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예견한 죽음을 앞두고 머리맡에 모인 자손들에게 내

가 죽으면 장지는 뒷동산으로 하고 석물(石物)은 지나치게 세우지 말라. 꼭 예(禮)를 따를 것도 없고 풍속을 따를 것도 없느니라. 풍수지리를 볼 것도 없다고도 하셨지요. 장례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상의절요(喪儀節要)에 적힌 대로 하라는 말씀이었다지요. 허세와 명분에 집착해 있는 오늘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묘 앞을 지키고 있는 아주 작고 얇은 망주석(望柱石)은 160여년 시공을 뛰어 넘어 오늘을 예견한 유언이었습니다. 비석에 쓰여 있는 임금이 내린 시호, 문도공(文度公) 머리 글자가 더욱 빛이 납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초대 조선 총독은 이곳에 와 조선사회 사상의 근간(根幹)을 집대성한 다산의 초라한 묘를 돌아보고 복토(覆土)를 명했습니다. 참 후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치밀한 병탄(併呑)의 수법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계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후 1959년 묘비 제막식 때 비로소 우리의 손으로 다시 한번 흙을 입혀 그나마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참 다행입니다. 강바람이 여유당을 거쳐 뒷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 스쳐 가는 바람소리에 나즈막한 유언이 들리는 듯 합니다.

더듬더듬 비문을 읽어 가는 도중에 한 무리의 노란 유치원생들이 재갈재갈 떠들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무덤을 가리키며 “이곳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알았죠.” 하며 숨 한번 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정약용(丁若鏞)이라는 이름을 한번쯤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알간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말입니다. 내가 자주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은 25년 전의 기억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당신도 한 번 와 보십시오. 굳이 봄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좋지만 이른 아침 강이 깨어나는 모습은 도시에서 지친 당신에게 아름다운 휴식을 줄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두가 물에 잠겨 뿔감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지만 왜 다산 집안이 이곳에 정착했고 끝내 떠나지 못했는가를 당신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건너 산은 하늘을 이고 함초롬이 젖어드는 한 폭의 진경 산수화이지요. 흐르는 강물은 그가 겪었던 고뇌와 울분을 씻어주고 극과 극으로 휘몰아쳤던 그의 생애의 아픈 상처는 이 마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묻

혀 시와 그림과 글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별에 나비도 올라왔습니다. 노랑나비는 무덤을 한 바퀴 너울대 더니 꽃을 찾아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따라서 강가로 내려갑니다. 부드러운 강바람은 꽃들을 헤살 놓고 이름 모르는 꽃들은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호박꽃이 피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저 나비들은 그 시대의 호박꽃을 찾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탄(南瓜歎)>>이라는 호박에 얽힌 다산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 시대 지식인의 창백한 고뇌를 읊은 시에는 아내와 아래 사람에게 대한 자조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남과탄(南瓜歎)

장마비 열흘만에 모든 길 끊어지고
성안에도 벽항(僻巷)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졌네
태학(太學)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문안에 들어서자 떠들썩한 소리 들려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지고
호박으로 죽을 쑤어 근근히 때웠는데
어린 호박 다 따고도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호박 아직 안 맺으니 이 일을 어찌하라

항아리 같이 살이 찐 옆집 마당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도둑질 하다가
총성을 바쳤으니 오히려 야단맞네
그 누가 네게 도둑질을 가르쳤나 심하게 볼기 맞고 꾸중듣는 중

아서라 죄 없는 아이 꾸짖지 말라
이 호박 나 먹을테니 다시는 두말 말라
옆집 가서 떳떳하게 사실대로 말하라
어릉중자(於陵仲子) 작은 청렴 달갑지 않다

이 몸도 때 만나면 출세 길 열리리라
안되면 산에 가서 금광이나 파보지
만 권 책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 부르랴
두어 이랑 논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을 것을

정약용(丁若鏞)

*태학: 성균관을 말함

*어릉중자: 중국 산둥성의 지명으로 자급자족을 의미

※ 필자소개

- 국회사무처 속기과 근무(1971-1974)
- 1995년 <시와산문>에 <고분이 있는 아파트 풍경>외 9 편으로 시부분 신인상 수상
- 1996년 중앙일보 시조백일장에서 <백령도>와 <서석지 에서>로 입상
- 1999년 <책과인생>에 수필 <유성>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회원
- 한국녹색시인협회회원
- 2002년 8월 <그꽃은 신포도였다>라는 에세이집 출간

시카고에서의 3년 반

강 수 현

약관 19세에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들어가 근무한 지 22년 7개월. 퇴직이란 특별한 경험을 맛보기도 전에 나는 가족과 함께 시카고에 오게 되었다. 아내가 한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가정에서 6개월을 함께 지내다 독립해서 살게 되었고 나는 선교사님 한인 친구의 소개로 미주신보라는 주간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세탁소로 직장을 옮겼고, 역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에이스하드웨어라는 미국 회사로 옮겨 그곳에서 일해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다.

돌이켜 보니 타향살이 3년 그리고 반.

시카고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미시간 호숫가에 가끔 가보는 것이다. 미시간 호수는 남한의 3분의 2가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큰 바다같은 호수인데 시카고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젖줄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일출을 처음 보기도 했다.

아침에 미시간 호수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 것은 시카고 생활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시카고는 산이 없어 자동차를 타고 죽 달리다 보면 앞이 지평선이다. 겨울에는 아주 춥고 눈은 아예 걱정하고 평평 오는 곳이기도 하다. 시카고 시내를 잘 지어진 건축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유명한 건축가들은 모두 이곳을 한 번씩 다녀간다고 한다. 이곳에는 유명한 무디기념교회와 무디신학원이 있고, 가까운 곳에 빌리 그래함센터와 박물관이 있는데 이 두 곳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꼭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와 버거킹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차

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주문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먹기도 한다.(한국에도 맥드라이브가 있는 것으로 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공원조성이 제일 잘 된 지역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는 1년에 두 차례씩 야외예배 행사를 하는데 야외에서 해먹는 숯불 불고기 맛은 기가 막힐 정도다. 이곳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지역마다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한국어적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다. 책은 3주 동안 20권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비디오와 DVD를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있다.

이곳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어떤 지역에는 한글로 된 간판만 있고 어떤 지역에는 한 집 건너 한인상가인 곳도 있다.

숫자상 통계는 5만여 명이지만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실제 유동 한인 수는 10만 이상이라고 한다. 큰 한인교회도 많고 교회 수만도 300개가 넘는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왜 미국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언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한인으로만 된 교회가 많다. 자녀들을 따라 미국에 정착하게 된 연장자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채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도 한다. 한인 연장자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신문도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발행되고 있다. 주간지도 5개나 되고 한인 TV방송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영어 한 마디 안 해도 한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된 것이다. 한인 자동차대리점, 한인 정비소,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들…….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1주일 동안 영어를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1주일간 한인만 만났다는 얘기임) 반면 무디신학원에 유학온 학생부부가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야 겨우 한국말을 써보네!’ 였다. 신혼부부가 영어 배운다고 집에서 영어만 사용했는데 모처럼 교회에 와서 한인들을 만나니 한국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한국말을 쓰려고 하니 잘 안 된다고(실은 얼마 안 되었음) 하여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다.

시카고 한인들의 주력업종은 세탁소다. 언젠가 취재차 세탁협회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넓은 연회장엔 모인 1000명 이상 되는 한인들이 모두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세탁협회장은 그날 모인 회원들은 전체 회원의 반 정도가 모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카고 세탁소의 80% 이상은 한인이 경영하는 세탁소라고 귀뜸해 주었다. 전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운영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세탁소를 한인들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인신문에도 세탁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제일 많은 편이다.

이곳에선 점심시간이 보통 30분이어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한다. 공립학교 학생들도 시간의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월급은 주급, 또는 2주마다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토요일은 관공서는 다 쉬고 임금은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 온 어린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년 정도가 되면 말하고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만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아직도 부모 밑에서 사느냐?’ 하고 친구들끼리 놀린다는 것이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인 한 분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살을 하게 되면 바로 집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넌즈시 알려 주셨다. 이곳에서의 대학생살은 곧 기숙사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잡으러 다른 주로도 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허전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겨우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정말 허전한 것 같다.(나도 멀지 않았네)

이곳에도 추석 대이동은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는 30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0만 명은 비행기 이용객이라고 했다.

한인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말미에 한국 소식을 전하는데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떠나 온 내고향이 무척 그리워진다.

끝으로 내가 다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꼭 실천하고 싶은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침 출근 후에 차 한 잔의 행복을 차분히 즐길 것이다.

둘째, 점심 후에 벗과 더불어 잠깐 동안 조용히 산책을 할 것이다.

셋째,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시간 후나 명랑 또 명랑하게 지낼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내가 국회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잘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국회에 근무하는 중 동남아 의회제도 시찰 명분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을 관광했고 국정감사 수행차 파리, 런던, 오슬로를 여행하기도 했던 내가 이제는 머나먼 이곳 미국 땅 미시간 호숫가 옆 시카고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일 한국 신문과 한국 뉴스를 보면서 고향생각을 한다. 내가 살았던 곳, 내가 근무했던 곳에 가보고 싶다.

협회 홍보부장의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같이 근무했던 여러 선배?동료들이 문득 보고 싶어졌다.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신입사원은 많이 들어왔을까, 아침에 영어회화 공부하던 동료들은 잘들 지낼까…….

먼 이국 땅에서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내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 회원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행복하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생활 되기를 바란다. 가끔씩은 떠나간 나를 생각하며 반가운 소식 보내 주면 나도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그나저나 이메일로 원고 달라고 독촉에 독촉을 거듭한 대한속기협회 홍보부장한테는 언제나 원쑤(?)를 갚을 수 있을까나!

(전 국회사무처 근무)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여행기

김 일 호

오랑!! 말레이 언어로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제 나와 우리 15인의 오랑들은 저 먼 常夏의 나라 말레이와 싱가포르로 날아가 또 다른 오랑들을 만나고자 한다.

며칠 전 대상자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해외여행의 설렘으로 일정을 몇 번씩 보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뽑아 보면서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단어와 에티켓을 익히는 등 여행 중 코리안의 긍지를 심어보자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첫째날(11월 5일)

화요일 아침. 행정부지사님과 여러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조금은 쌀쌀한 아침 기온이지만 10시간 후에 도착할 따뜻한 나라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오른다.

진짜 오랑우탄을 닮은 뉴금남여행사 이문행 사장과 차 안의 따뜻함이 약간 긴장한 우릴 반겨주면서 버스는 도청광장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李오랑(李社長)은 공항까지 가는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행일정,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그 나라의 기후, 생활, 문화 등을 계속 안내해 줘 해외여행이 처음인 나에게 내심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시경 웅장하면서도 고전미를 가미한 인천국제공항의 방대한 면모에 감탄하면서 우리는 본격적 여행 케도에 오른다. 이제부터 우린 글로벌오랑인 것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방법과 수속절차, 비행기편의 확인방법 등을 숙지하며 공항 내 면세점을 기웃거리는 사이 드디어 16:15, 보잉 747기의 웅장한 기체 속으로 우리 일행이 빨려 들어가면서 본격적 여행일정이 시작되었다.

인천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는 약 6시간 30분 정도. 중간중간 음료수와

기내식이 제공되고 영화 한 편 보고 나니 어느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고 있다.

밤이라 그런지 덥지는 않은데 내 말초신경으로 전해오는 감각은 우선 혼 혼하다는 느낌이다. 우리보다 1시간 늦은 말레이시아는 아직 21시 55분. 아시아의 5대 공항 중 하나로 21세기 동남아 지역의 허브공항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로 98년 완공되었다는 세팡(Sepang)공항을 통과하자 미남형에 착하게 생긴 현지 안내인 나승천 씨가 시내로 들어가는 1시간여 동안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다. 한국인을 만나는 것이 벌써 반갑다.

참고로 세팡(Sepang)공항은 과거 정글지대로 91년 4월에 착공, 약 7년이 걸려 98년 개항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항 중 하나로 그 면적에서 김포공항의 10배, 인천 신공항의 3배인 100km²에 이른다. 지붕이 열대 야자수 형상으로 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의 멋을 한껏 자아낸다는 우아한 건물을 밤이라 볼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하다.

말레이시아는 2250만 명의 인구에 면적은 남한의 1.5배로 고무의 나라로 유명했지만 노동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은 관리가 한결 손쉬운 팜나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말레이에는 인도인이 많은데 이는 인건비가 싼 인도사람들을 데려와 고무를 생산하는 노동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지금은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의 인도인 비중이 80% 가까이 된다고 한다. 물론 25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자도 있기는 하지만 치안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하니 요즘 우리나라 외국인수생 및 불법체류자와 비교할 때 이곳은 우리보다 좀더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北으로는 태국, 南으로는 싱가포르를 연결하면서 말레이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이 965km의 남북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외국에서의 첫날밤을 지낼 니꼬호텔에 도착했다. 오랜 비행시간은 여행 첫날밤의 우털 조용하고 깊은 숙면으로 이끌어 준다.

둘째날(11월 6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을 보니 한국의 여름날씨와 다를 바 없었다. 호텔에서 내다보이는 말레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경관이 대단하다. 고층빌딩이 쪽쪽 자리잡고 뽀냄이 마치 서울의 강남을 연상케 한다. 도시 사이사이 팜

나무나 야자수가 없다면 여긴 뉴욕, 동경, 서울이라 한들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결론이지만...

아침 식사를 알랑미와 약간의 빵으로 채우고 나서 체크아웃을 하러 1층 로비에 내려왔는데, 나중 설명을 들으니 1층 로비는 대리석 한 장으로 제작되어 깔려 있고 카펫도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제서야 알게 됨이 조금 섭섭하다. 다시 볼 수도 없고...

냉방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니 이른 아침인데도 찌는 듯한 날씨에 상당히 습하다. 이제야 외국에 왔다는 것이, 적도 근방의 무더운 나라에 왔다는 것이 느껴진다. 첫날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

시내를 벗어나 어제 공항에서 올 때와는 다른 동서고속도로를 이용, 겐팅하일랜드로 가는 길로 접어든다. 도심을 벗어난 도로 주변의 풍경이 야자수만 없다면 마치 우리의 과거 시골풍경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낮고 넓은 함석지붕과 좁은 도로 등... 그럼에도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있는 것이 특이하다.

고속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는데 경찰이 버스를 세워서 이것 저것 검사를 한다. 무슨 잘못이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자동차가 많은 말레이시아는 자동차세 납입여부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체크한다고 한다. 역시 여유가 많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라면... 어렵도 없지!!

버스는 계속해서 산속을 올라간다. 우리의 지리산을 자동차로 오름과 같다. 50여 분을 달려 해발 1800m 높이의 안개낀 겐팅하일랜드에 도착한다.

겐팅하일랜드

회교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된 땅. 무더위의 나라에서 연중 선선한 기온을 자랑하는 관광의 땅. 엄청난 수입원을 개인과 나라가 공유하는 부러운 땅.

옛날(?), 현재 사장인 림고통(이름이 재미있다)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다 우연히 1년 내내 더운 말레이시아에서 낮에도 24도까지밖에 오르지 않는 이곳에 호텔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호텔을 지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없자 곰곰이 생각한 끝에 도박장을 건설하였는데 그 예측이 적중한 것이 현재의 겐팅하일랜드이다.

문제는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사형까지 집행하고 도박(손목을 자름)과 술을 금기시하는 나라이므로 국가에서 도박장 개

설 허가를 안 해주는데, 자국민들은 출입시키지 않을 것이며 30%의 세금을 내겠다는 조건으로 도박장 허가가 났다고 한다. 1만 개가 넘는 세계 최대의 객실을 가지고 있지만 금~일요일은 거의 만실이라고 한다.

호텔요금이 싼데다가 도박과 골프, 영화 등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곳을 다 관광하려면 며칠은 걸려야 한다고 한다. 1200m 지점에 주차장이 있어 정상까지의 이동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케이블카가 운행되며, 비상시와 셔틀버스 및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한 무척 가파른 도로도 있다. 30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공사용 케이블카는 본 케이블카 정지시 임시운행을 한다고 한다. 불운하게도 우리는 본 케이블카의 정비로 총알택시를 이용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도착하여 보니 호텔의 규모가 다시 한 번 우릴 놀라게 한다.

가장 우리의 흥미를 끌었던 카지노는 동양 최대이자 세계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강력한 끌림에 최소한도의 달러만 지출키로 하고 전원이 도전한 결과 그 승부는 ?

참고로 훗날 개인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도박장에 입장하는 데는 약간의 제약조건이 있다. 반바지 차림이나 티셔츠 차림은 입장이 안 되며 티셔츠 차림이라도 목깃이 있는 옷이라야 입장이 되지만 너무 걱정은 마시라. 도박장 입구에서 옷을 대여해 주기도 한단다.

즐거운 손맛을 잠시 즐기고 나오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다들 너무나 즐거운지 약속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30분이나 지체되어 부득이 시내에서 계획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겐탕하일랜드를 구름 속에 반쯤 묻어놓은 산중턱의 중국식 말레이시아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랑아슬리라는 민속촌으로 향했다.



오랑아슬리 민속촌.

원래 말레이에는 수많은 마을단위 원주민들이 생활하였는데 이곳은 그 원주민들의 계보와 생활상을 한눈에 알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식 민속촌인 셈이다.

이글의 처음인 오랑은 여기

서 따온 것으로 오랑은 人間을 뜻하는 말레이 언어이다. 이 민족은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1, 2개월 정도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생활하다 보니까 집 자체(오랑아슬리 민속촌에서 - 뒷줄 왼쪽 네 번째가 필자)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결혼 시 남자가 여자 집에 한화로 200~300만 원을 쥐야 하며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집에서 다시 올리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신랑에게 가장 아끼는 것 일곱 가지를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신부가 껌을 좋아하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장례의식 중 특이한 것은 관은 시신을 장지까지 옮길 때만 사용하고 시신은 깨끗이 씻어 흰 천으로 세 번 감고 세로로 눕게 하는데 이때 오른쪽 귀가 밑으로 향하게 하고 얼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메카를 향하게 한다고 한다. 자신의 神이 그쪽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철저히 자연에 환원코자 하는 그들식 삶의 행로가 아닐까?

이 민족에게는 일명 똥жат알리라고 하는 유명한 약재가 있는데 상당히 쓴 맛이 나고 오랑아슬리 민족이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사용하던 약재로서 우리나라의 인삼에 비유하는데 몇 년 전 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당뇨로 고생하다 이 뿌리를 먹고 좋아져 국가정책으로까지 장려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종유동굴인 바투동굴로 향한다.

바투동굴.

1878년 발견된 힌두교 성지이다. 부처의 제자(이름을 잊음) 중 1명이 이곳에서 道를 닦았다고 하는데 주위에는 100만 년도 더 되어 보이는 석회석 지층이 노출되어 그 웅대함이 장관이다. 400m 정도의 가파른 272계단을 주변의 원숭이들을 보면서 오르니 그리 힘이 들지는 않다.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과일을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과일을 반으로 자르면 상할 것 같아 두 아들 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과일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였다. 두 아들은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큰 아들이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입니다.”라고 하자 지구의 일곱 바퀴를 돌아보고 온 작은 아들은 내가 아직도 수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곳 바투동굴을 선택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곳으로 하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역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가 보다. 바투동굴을 뒤로 하고 쿠알라룸푸르 시내로 들어와 오늘의 마지막 볼거리인 주석공장을 견학한다.

말레이시아는 주석이 주된 광물인 나라이다. 스콜과 숲이 많고 호랑이와 뱀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반해 지층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반이 약해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땅속에 물도 썩지 않게 하는 ‘썩’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석이다.

이 썩이라는 성분이 98% 이상 함유되어야 주석으로 인정을 하는데 물의 정화작용을 하면서 맛이 변하지 않고 온도변화가 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으로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멋진 완제품이 우리의 지갑을 열라고 호드킨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약간은 감수해야지...

바쁜 일정 탓에 왕궁은 보지 못하고 설명으로 만족한 채 공항으로 향한다. 참고로 말레이에는 13개 주 중에 9개 州가 왕체제로 되어 있는데 9개 주의 왕이 돌아가면서 국왕의 임무를 겸하며 왕은 세습한다고 한다.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하루 일정을 마치고 랑카위로 향하기 위해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세팡공항에 다시 도착했다. 어제보다 밝아 공항의 외모를 잠시나마 볼 수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출발시간이 2시간여 남아 기다리는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착의의 사람들이 다가온다. 울산에서 온 신혼부부인데 역시 이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 반갑다. 이들은 그후 우리와 같이 어울려 퀴즈게임에 참여하고 랑카위에 도착해서도 같은 숙소에 있었고, 싱가포르를 거쳐 다시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출발할 때도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다. 이들을 보면서 그동안 나를 내조하느라 애쓴 부인과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오지 못함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공항대합실에서 앞의 李 社長이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 주기 위해 즉석 퀴즈 내기를 제안한다. 우리 몸에 ‘지’자로 끝나는 열일곱 가지의 신체명칭이 있다는데... 최소한 3시간짜리 퀴즈는 된다는데 여러분도 한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펴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남자의 중요한 부위 두 군대를 빼면 15개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제일 많이 알 것 같은 의사들도 3시간이 넘게 걸렸다는데 우린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즉 2시간 정도 걸려 정답이 나왔으니 대단한 관광객이 아닌가 한다.

李 社長의 기발한 코멘트에 공항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진지

한 자세로 뭔가 골몰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17개를 다 맞추고 나니 말레이 특유의 영어로 탑승을 알리고 있다. (말레이 영어는 미국 등의 영어와 달라 간략하고 억양도 알아듣기 어렵다.)

랑카위

랑카위는 말레이시아 반도 최북단 태국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1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이 중 3개의 섬만이 유인도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각 섬마다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랑은 독수리를, 카위는 대리석이라는 뜻으로 과거 해적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현재는 정부와 민간 주도로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야자수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밤에 도착한 랑카위는 우리나라 여름날씨와 별로 다름이 없는 느낌으로 아주 조그마하고 예쁜 공항이다. 공항 인근의 한국식당에서 한국인 주인의 반가운 미소를 받으며 김치찌개로 늦은 저녁을 마치고 펠랑기(무지개) 호텔에 여장을 푼다.

펠랑기호텔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이 느껴진다. 열대식물의 아름다운 조경 속에 말레이시아 전통양식대로 순전히 목조로 건축된 이 호텔은 모두 2층으로 방마다 완벽한 냉방시설과 함께 창문을 열면 저 멀리 인도양이 야자수와 함께 끝없이 펼쳐져 보인다. 짐을 정리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변가를 거닐고 심야의 맥주 한 잔으로 피로를 씻어버리며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날의 즐거움을 위해 잠을 청해 본다.

셋째날(11월 7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가를 거닐어 본다. 길다란 해변가의 야자수, 그 밑의 매혹적인 비치와 방갈로, 야자수 그늘이 만들어내는 시원함, 열대성 꽃으로 꾸며진 정원 등이 모든 것이 이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만든다. 오늘은 완벽한 휴식을 위한 하



루이다.

첫 일정은 바다낚시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사진촬영 중 배 한척이 접근한다. 급한 마음에 배에 오르니 녀석 좋게 생긴 선장이 배를 신나게 몰아 산호가 많다는 무인도 옆에 배를 정박한다.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각자 낚시를 즐기는데 연신 들리는 “잡았다”라는 외침에 모두를 웃음이 환하건만 유일한 여성 김영주 씨는 그저 바라만 본다. 어제 퀴즈를 풀면서 적립해 놓은 10달러로 오늘 대어왕을 선정하기로 하고 열심히 손맛을 느끼고 있는데, 상어에서 시작하여 먹지 못하는 열대어까지 1시간 반 동안 양동이로 가득 잡은 것을 선장이 직접 회를 떠 소주와 함께 먹는 그 맛!! 아직도 입가에 생생하게 느껴진다.

오늘의 점심메뉴인 바비큐를 현지인이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는 배를 타고 섬 주위 절경을 구경한다. 사진 속의 섬은 임신부의 섬으로 불리는데 섬 가운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의 물을 먹으면 임신한다는 전설이 내려져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이 호수의 물을 먹고 임신을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임산부의 섬에 도착하여 친구들(원숭이)과 함께 울창한 숲을 따라 올라가니 산속의 호수 크기가 놀랍다. 섬 한가운데 이런 호수가 생긴 것이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그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깊다는데 물의 온도는 차가운 느낌을 못 받을 정도이다.



호수에서 잠시 수영도 하고 메기(집단 사육하며 먹이를 주면 발가락을 뺨)한테 발 맛사지도 받고, 점심이 준비되는 무인도로 돌아와 게, 새우, 물소고기, 꼬치와 함께 알랑미로 만든 볶음밥까지, 거기다 소주를 곁들이니 이젠 이곳에 정착을

해(?), 즐거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옆의 섬으로 다시 이동하여 해수욕을 하면서 바나나보트도 타고...

미치도록 즐거운 낮의 하루를 접고 숙소로 돌아와 그 아름다움이 세계 최

고라는 석양을 보면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날씨가 흐린 관계로 석양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닷가재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다. 호텔 중앙로비에서 매일 공연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자 하였으나 하필이면 오늘은 공연이 취소되어 부득이 생맥주 한잔으로 아쉬움을 때우고 낮의 피곤함을 핑계삼아 잠으로 빠져든다.

넷째날(11월 8일)

어제의 즐거움과 함께 피곤함으로 오늘 오전은 각자의 휴식을 갖기로 했다. 해변가의 야자수 아래에서 책과 함께 사색에 잠긴 분, 랑카위 시내를 산책하는 분, 자전거를 빌려 멀리 하이킹하는 분 등 각자 개인시간을 보낸다.

이제 또 다음 여정을 향한다. 싱가포르 가기 전 랑카위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봐야 한다. 먼저 시내의 조그만 수족관에서 다양한 열대성 물고기를 본다. 바다의 용이라 불리는 해룡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해초같이 생겨 머리에는 수염이 나 있고 누워 있지 못하고 서 있는 물고기로 사진에서나 볼 수밖에 없는 해룡과 해마를 직접 보았으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오후에는 영화 ‘에나 앤 킹’의 세트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과거 울 부리너가 주연하였던 영화를 리바이벌한 것으로 원래는 세트장을 태국에 설치하려 했지만 태국정부에서 왕조의 불륜을 그린 영화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 하여 태국과 가장 조건이 맞는 이곳 랑카위에 세트장을 설치하여 촬영한 곳으로 실제 태국왕조의 생활과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참고로 시중에 1편과 2편으로 된 비디오가 있다고 하니 그 영화를 빌려보면 필자의

기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후 뱀사육장을 둘러 뱀쇼를 구경하였는데 이곳은 둘째날 왕궁을 보지 못하였다고 현지 가이드께서 한 곳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보여준 특별 서비스인 셈이다. 착한 우리 가이드의 心性



이 고맙기만 하다. 이제 말레이시아와 랑카위섬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랑카위 공항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현지 가이드와 아쉬운 작별을 한다. 이런 헤어짐은 항상 안타깝고 아프다. 정녕 남는 자는 누구이며 떠나는 자는 누구인가? 뭔지 모를 아픔이 가슴 저 밑에서 자꾸 저며온다.

여기는 싱가포르

싱가폴 창이공항도 세계적인 공항답게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가 비 면세지역으로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말처럼 입국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게 이루어진다.

이별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했던가. 말레이의 가이드를 겨우 잊으려 하는데 이견 뭐가! 공항에서 李社長이 소개하는 현지 가이드는 여성이 아닌가!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인 정진희 씨는 아름답고 애처롭고 다정스런 목소리로 싱가포르를 소개한다. 한국의 여성탤런트 김자옥이 앞에서 설명 중이라 생각하면 정확하다.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가로수(야자수, 로얄팜)가 아름답다. 이 야자수 길은 밤에 하늘에서 보면 빛을 발한다고 하여 공항시설이 파괴되었을 때는 활주로로 이용된다고 한다.

싱가폴은 말레이시아 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주변에는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자바, 보루네오, 슬라웨시 등 많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의 이름은 SANG NILA UTAMA 왕이 바다사자(Lion)을 이곳에서 보고 SINGAPURA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SINGA’는 ‘사자’라는 뜻이고 ‘PURA’는 ‘도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원 속에 있는 도시라 불리는 싱가폴은 원래 말레이시아 영토였으나 늪과 숲지대로 되어 있어 도저히 개발이 되지 않을 지역으로 판단하고 1965년에 독립을 시켜 주었는데 현재는 GNP 2만 6000불의 도시로 발전하였고 서울시 정도의 크기에 인구는 200만 명이고 중국계가 77%, 말레이계가 15%, 인도계가 8% 정도로 다수민족이 복합되어 살고 있어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어, 영어 등 4개국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국식당에서 김치찌개로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싱가폴의 도심을 가르며 콘리크 리버(江)에서 유람을 한다. 배를 타고 멀라이언 공원까지 가는데 강변에 줄지어 서있는 고색창연한 옛 영국식 건물들이 한국어 설명과 함께 화려한 조명 속에서 현실로 되살아 나오는 것 같다.

멀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인 반신 사자, 반신 물고기 동상이 서 있는 곳으로 1972년 9월 15일 싱가포르 강 입구에 세워졌는데 조명과 함께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밤풍경은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빠지지 않는 곳이라 한다.

특히 강변에 불야성을 이루는 야시장이 인상적이어서 우린 배에서 내려 풍물시장과 벵골시장 및 포장마차 촌(?)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는다. 거리에는 밴드와 조명, 수많은 인파와 젊은이들의 사랑과 강바람이 모두 함께한다. 아! 자유를 느낀다. 소진되지 않은 젊음이 느껴진다.

노상카페에서 인도식 부침개와 꼬치에 소주를 마신다. 너도 나도 모두가 즐겁다. 흥이 오른다. 인도인들의 악착같은 商術도 즐겁고 흥이 안 된다. 여자 가이드의 웃음이 추억 속에 남고 모두 하나가 된다. 이곳이 한국인가 싱가포르인가... 짧아지는 여행시간처럼 갖고 온 소주가 떨어져 간다. 시간이 짧다 느껴진다. 그래도 이제 자야 한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묵게 된 호텔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최고 높은 호텔로 기록된 126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74층의 스위스 웨스틴 호텔로 쌍용건설에서 건설하였다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절로 나게 한다.

다섯째날(11월 9일)



어느새 관광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창을 여니 습도가 많은 따스한 바람이 들어온다. 앞으로는 시청건물, 앞으로는 오페라하우스 건물이 보이는데 똑같은 건물이 없도록 한 싱가포르의 도시정책이 건물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국제적 관광도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게 한다.

아침에 보는 싱가포르의 첫인상은 너무나 깨끗하고 활기차게 느껴진다. 분명 계획적인 도시이다. 어젯밤 강변의 건물들은 200년 전의 영국풍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침의 풍경은 그게 아니다. 새롭

게 태어난 신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싱가폴은 비면세 국가지만 세 가지만은 상당히 비싸다. 술과 담배와 자동차인데 모두 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어서 세금이 70%~80% 가까이 붙는다고 한다. 담배는 1500원짜리가 8000원, 자동차는 우리나라 쏘나타 기준 1200만 원짜리가 9000만 원 정도 한다. 때문에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한다.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재산목록 1호로 아낄 만큼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차값이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벤츠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열대성 기후여서 껌이 바닥에 떨어지면 녹아서 상당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해서는 소지도 못하게 한다.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 주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부정이 없고 거짓말이 최고로 죄악시되는 나라, 여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

시내 버스투어 도중 가이드 정진희 씨가 중간중간 웃음을 가져다 준다. 설명 도중 특유의 멘트 때문이었는데 뭘 묻기만 하면 “아이 참”, 본인은 모르지만 듣는 우리로서는 김자옥을 연상케 하여 웃음이 절로 난다. 실제로 말하는 것과 목소리가 김자옥과 똑같았으며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 우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아침에 들른 국립식물원, 약간 찌는 듯한 날씨 속에서도 15만 평에 식재된 온갖 식물과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쾌한 공기에 마음의 피로가 깨끗이 씻겨 내리는 듯하다.

다들 지난밤의 피곤함(이 부분은 너무 엽기적이어서 생략)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거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몽골리안 바비큐로 점심을 하고 나니 원기회복과 함께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오후에 들른 센토사 섬은 자연, 역사, 오락 등 다양한 즐거움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상징이요 자랑이다. 도심에 가까이 있어 케이블카 또는 육로를 이용하여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센토사 섬에는 동양 최대의 해양수족관을 비롯하여, 분수쇼를 볼 수 있는 뮤지컬 분 파운틴, 예쁜 난꽃을 가꿔놓은 오키드 가든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센토사 섬의 멀라이언 상을 뒤로)

해변을 따라 센토사 섬을 일주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희귀한 새들과 함께 해변을 관망할 수 있어 내가 어느 숲에 와 있는지 혼동이 생긴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인상적이라는 조류사육장 주룽새공원은 600여 종,

약 8000마리 새들의 멋진 집으로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흥학, 마카우, 혼빌 그리고 앵무새 등의 새쇼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신기한 광경을 선사하므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은 쇼이기도 했다.

남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펭귄전시관에는 200여 마리의 펭귄 외에도 잉카 제비갈매기, 섬새 등 50여 마리의 바다새도 함께 사육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조류사육장’에는 24개의 개별 새장과 함께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새와 함께 놀 수 있는 새장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의 정글에서 온 100여 종의 새들에게 한낮에 내리는 열대비와 천둥까지도 그대로 연출하는 등 새들의 서식지와 똑같은 적도환경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다 한다. 섬에서 육지로 나올 때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였는데 90m 상공에서 초현대식 접안시설을 갖춘 항만과 함께 항만을 끼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내를 한눈에 바라다보는 재미에 도취해 있는 것도 잠깐, 두 번씩이나 케이블카가 멈춰서는 바람에 잠시 흔들리는 케이블카 안에서 두려움과 함께 싱가포르 시내를 여유롭게 내려다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고장이 아닌 것으로 추후 확인)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면세점으로 친구, 동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의 사장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아가씨들은 매일 아침 미팅을 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익힌다 하는데 말하는 솜씨들이 여간 아니었다. 이제까지 언어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언어 때문에 이곳 면세점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선물을 고르고 나서 계산을 하니 물건값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세일을 해 달라 못 해준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중간에 점원아가씨의 말, “아이, 쏘쏘한 사람” 하는 게 아닌가. 현지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도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약간의 당황함과 함께 모두의 웃음이 터진 가운데 흥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되돌아가야 한다.

아쉬움인가 허전함인가. 막상 예정된 일정이 종료되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찻찻한 기운이 감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의 이동이 진행되면서 버스운전사가 판매하는 병따개 등 기념품을 구입하는 우리 동료들의 마음이 너무 착해 보인다. 우리를 열심히 안내한 정진희 씨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요 끝마치는 여행의 뒤풀이를 스스로 마감함이 아닌가 싶다.

다시 창이공항이다. 이제 또 정든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 수속을 밟고 서로 갈라선다. 1명은 잘 가라 하고 16명은 잘 있으라 작별한다. 친정이 옥

천인 정진희 씨가 우릴 보낸다. 떠나는 우리야 흥분하지만 남은 자는 얼마나 한국으로 가고플까! 여행의 끝마침을 아쉬워하는 듯 밤깊은 공항 대합실의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하염없이 비행기 몸체를 두드린다. 이런 비는 이곳에서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한다.

비행기가 창이공항을 떠나 말레이시아의 세팡공항으로 다시 돌아와 한국을 향해 출발한다. 언제 다시 올지 기약은 없다. 어쩔 다시는 못 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충만된 기분이다. 여행은 즐겁고 행운의 연속이었다. 스콜도 우릴 모두 비켜갔고 사고도 없었고 모두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모두의 배려가 고맙고 지금 우린 행복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 공항을 거쳐 쿠알라룸푸르를 경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선진행정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5박6일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한다.

(충청남도의회)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태평양을 보고

박 경 애

신혼여행에 이어 생애 두 번째로 경험하는 해외나들이였기에 조금은 긴장 되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난 9월 29일 밤 8시에 열네 명의 동료들과 함께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드니 공항에서 맨 먼저 우리를 기다린 것은 호주인들의 여유로움이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와는 무척 달랐다. 시드니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답게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입국심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시드니 수족관을 시작으로 곧장 3박 4일간의 호주 투어에 들어갔다.

호주는 관광지마다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호주인들은 대체로 물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 인생 최대의 목표가 물가 앞에 있는 집을 사서 개인 요트를 장만하는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물가 앞에 있는 집이 가장 비싸며 조금이라도 물이 보여야 집 값이 높다고 한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워낙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률은 아주 낮다고 한다. 거리의 상점들은 오후 5시가 지나면 문을 닫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여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일행은 밤 8시 이후에 술이나 한 병 사볼까 하고 시내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나 실패했다. 술도 우리나라처럼 슈퍼마켓에서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바틀샵이라고 술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따로 있었다.

또한 호주는 여성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스운 얘기로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여자를 구하고, 그 다음이 노인, 아이, 동물 순이라고 한다. 만약 그때까지도 살아 있으면 마지막으로

남자를 구한다고 한다. 거대한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 보니 인구증가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여자가 아이를 넷만 낳으면 부부 모두 직장을 갖지 않고도 가족 전체가 편히 살수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라면 나도 아이 넷 낳는 것은 문제 없는데…….

아름다운 시드니 항만과 어우러진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를 뒤로 하고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호주도 그렇지만 뉴질랜드도 들어서자마자 청량한 자연의 정취가 물씬했다. 오클랜드의 에덴동산에서 바라본 시내정경은 깨끗한 수채화 한 폭을 연상케 했다.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가 절로 읊조려질 만큼 아름다운 초원 위에 소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과 언덕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작은 집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클랜드를 벗어나 로토루아로 가는 길은 끝없는 초원의 연속이었다. 간간이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어우러진 공원은 모든 시름을 없애 주는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사람보다는 양이나 소를 만나기가 훨씬 수월했고 어쩌다 마주치는 뉴질랜드인들은 호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친절했다.

뉴질랜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대부분이고 2차산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많이 보였다. 목축업이 대부분인 이곳에서는 소와 양들이 청정구역인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좁은 축사에 갇혀 사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무척 인상적이었다.

관광지 대부분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흔한 휴지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호수에는 커다란 구렁이 같은 장어 떼가 널부러져 있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송어를 아주 흔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생선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송어는 개나 고양이의 사료로 쓰인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

뉴질랜드는 또한 번지점프, 스키, 래프팅, 하이킹 등 스틸 있는 레포츠로 유명한 나라이다. 열네 명의 일행 중 여섯 명의 근심 많은(?) 여성동지들도 숨을 고르고 43m 높이에서 한 마리 새가 되어 차례차례 날았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영화 와호장룡의 여주인공처럼 우아하고 멋지게 날아야지 하면서 하나, 둘, 셋 구렁에 맞춰 양팔을 좌악 벌리고 그야말로 멋지게 날았다. 세상에, 내가 로토루아에서, TV에서나 보았던 번지점프를 하다니……, 것처럼 짜릿한 기분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귀국하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연인이 헤어지기 아쉬워 쉽게 포옹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때마침 우리 일행 중 한 사람도 뉴질랜드를 떠나기 아쉬워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닌가!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일행은 모두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벌하게 경쟁하고 조바심 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모든 긴장을 풀어 버리고 광활한 대자연 속에 온 몸을 내던지며 떠난 여행이라 좀더 지속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내내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가 여행한 두 나라는 모두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축복 받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좁은 땅에서,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2차 산업과 IT산업, 철강산업 등 세계 곳곳에 ‘Made in Korea’의 위력을 떨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척 자랑스럽다.

그러나 두 나라를 다녀 보니 우리는 인간성을 도외시한 채 물질적인 풍요에만 매달려온 듯하다. 자연과 인간은 인위적인 발전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를 치유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순간부터 인간적인 삶,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겠다.

(전라남도 영암군의회)

도전과 성취 그리고 국회속기사로서의 1년

조 율 희

어느 해보다도 좌절과 기쁨의 교차가 심했던 2001년, 그리고 숨쉴 틈 없이 달려 왔던 국회속기사로서의 2002년 한 해.

내 인생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98년 2월은 IMF 한파가 극심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컴퓨터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학원강사였던 나는 쓸만한 자격증 하나 따 놓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속기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몇 달 다니고는 금방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마음속 한 편에 남아 있는 속기에 대한 미련은 떨치지 못한 채였다.

그러다가 2000년 4월, 결국 나는 태어난 고향인 순천에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달랑 1년여를 보낼 만한 생활비만 들고 컴퓨터속기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다. 무작정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시험 준비를 해 나갔지만 속기의 기초만 겨우 끝냈다가 다시 시작한 내게 있어 10월에 있을 자격시험은 무리였다. 의지할 부모님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에서 꿈 하나만 가슴에 품고 지냈던 7개월여의 시간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른 후 11월, 드디어 나는 컴퓨터한글속기 2급과 3급 자격증을 갖게 되었다.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는 그동안의 고생들에 대해 한꺼번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낼 곳이 없어 고민하였던 기억,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쪼들리게 살았던 생활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구토증세와 두통, 무엇보다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자

격시험에 합격한 순간 내게 힘들었던 이런 모든 기억들은 한순간에 좋은 추억으로 바뀌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급 자격증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해 말,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회!!!

말은 들었지만 감히 함부로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곳, 나는 쳐다볼 수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렇지만 속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마음속으로 꿈꿔 왔던 곳, 바로 그 국회에서 7월에 속기직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던 것이다.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졌다지만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까지 있는데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나는 시험준비를 하겠다는 결정조차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2001년의 1월이 후딱 지나갔고 자신 없어 망설이던 나는 도전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 2월에 고시학원에 등록해서 필기시험 공부를 했고 속기학원에서는 계속 1급 준비를 해 나갔다. 그렇게 고시학원과 속기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던 중 4월에 CAS속기협회에서 연수가 시작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협회의 연수도 놓칠 수가 없었던 나는 연수를 받으면서 5월에 1급 자격을 땀고, 계속 필기와 실기 공부를 병행했다.

국회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취업기회가 있었다. 2001년에는 유난히 법원이나 의회 등의 시험기회가 많았는데 그때의 나에게서는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도 나의 도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냥 다른 데에 취업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몇 번의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국회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던지…….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린 후 인터넷의 게시판에서 수험번호를 확인

했다. 아, 내 인생에서 그 순간만큼 떨렸던 순간이 있었을까, 게시판에서 내 수험번호와 이름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내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믿어지지 않아 내 이름 석 자를 보고 또 보았다. 틀림없이 내 이름이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국회속기사가 된 것이었다!!!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합격사실을 알려드리자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셨고 나는 그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라 그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회는 조직의 성격상 하반기에 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 임시국회가 간간히 열리기는 하지만 정기국회(9월~12월) 동안의 업무량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집행했던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 새해 예산안, 국정감사, 그리고 수많은 민생법안들…… 정말 100일간의 회기 동안 국회의 모든 부서가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그나마 올해는 대선 관계로 인해 회기가 한 달 정도 줄어들어 힘이 덜 든 편이었지만 새내기 속기사인 내게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던 정기국회였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행했는데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위원회는 참 어려운 위원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국감에 임했는데 같은 국감팀의 선배님들과 동기생들이 부족한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과기정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모두 잘 대해 주어 첫 국감의 기억을 아주 유쾌한 기억으로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감과 정기국회를 지내는 동안 속기과 선배님들과 동료들 간에 보이지 않게 맺어져 있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직장생활이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지내는 동안 나도 이 조직의 일원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다.

졸필이지만 이 글을 쓰면서 지난 1년여를 곰곰히 되돌아 보니 지난날들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기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다. 회의가 길어져 차수를 변경하며 밤을 지낸 적도 있었고 많은 국감원고들을 해내느라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참 많이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켜 준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낫듯이 내년에는 더욱 성장한 속기사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성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믿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내결에서 힘을 주었던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은혜라 생각한다.

유능한 속기사가 되려면 항상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진정 능력 있는 속기사가 될 것을 다짐해 보며 입사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3담당)

늦게 이론 만큼 더 열심히...

최영림

우연히 잡지에서 유망 자격증 목록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컴퓨터그래픽스, 독서지도사, 요리사, 피아노 조율사 등등..... 그 목록 중에는 속기사도 있었다. 나도 자격증을 하나 따볼까 하는 생각에 그 목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 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추려 번호를 매겨 보았다. 그 첫번째가 속기사였다.

마음을 먹고 나서는 일단 속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았다. 어디서 어떻게 배우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학원으로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9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구나 싶어 학원에 등록을 했고 속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판부터 익혀야 했다. 자판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활용약자를 익혀 나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부터 낭독을 들으면서 받아치는 연습을 했다. 배우면 배울 수록 흥미가 생겼다. 빨리 속도를 늘리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하지만 1년에 두 번 있는 시험에 맞추어서 속도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금방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던 예상과 달리 공부 기간이 늘어났다. 공부 기간이 늘어나 힘들었어도 속기사에 대한 내 열정은 식지 않았고 나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1급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운전면허처럼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

이 알게 되었다. 국회, 법원, 방송국, 속기사사무소 등에서 많은 속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속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던 나는 속기사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딴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 당시에는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 이미 치러진 다음이라 나는 개인 속기사사무소를 염두에 두었다. 직접 사무소를 차릴 요량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법원 근처의 개인 사무소에 취직을 했다.

녹취록을 만드는 것은 학원에서 공부하던 것과는 차이가 많았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해 온 테이프를 풀 경우 주변 소음에 사람의 목소리가 묻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한 선생님이 잘 정돈된 문장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고 속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더군다나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속기하기란 정말 고된 일이었다. 또한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아동학대, 사기, 간통, 협박, 스토킹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고 거북스러운 내용이 많았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속기사사무소 일에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중에 국회 공채 공고가 났다. 나이가 많아 국회시험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운 좋게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하는 각오로 당장 속기사사무소를 그만두고 국회속기사 시험준비를 시작했다. 되돌아 보면 정말 그때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1년여 후인 지금, 나는 국회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길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그동안 나는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 등 국회속기사로써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익혀 왔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출장을 갔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국회 내에서 회의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피감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감사관련 자료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힘도 들었지만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를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나의 안목을 넓혀 주
고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직은 새내기로 배워야 될 것, 익혀야 할 일들이 내앞에 엄청나게 쌓여
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한데 그것을 익히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속기사는 현
장의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회의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회
의상황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 또한 성실하고 책
임 있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을 강제할 수 있게 기록하
는 것이 국회속기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내
소임에 충실하려 한다. 한 20년 뒤에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돌아다 보아
도 후회하지 않도록.

늦게 출발한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생활할 것이다. -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국회사무처 속기1과 3담당)

◆ 협 회 동 정 ◆

☒ 이사회 소식

· 제189회 이사회(2002. 1. 17)

보고사항으로는

▲ 비영리법인 규제완화 관련 정관변경요구서 접수(01. 5. 21)

▲ 법인에 대한 행정권한 이관(문화관광부→서울시)(01.11.28)

▲ 2001년도 결산 자체감사 실시(02.1.15) 등.

부의안건으로

▲ 가항 제35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은 2월 2일(토) 오후 1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나항 2001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은 8,948만 744원의 결산내역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

▲ 다항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은 1억 2,556만 244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당 협회의 국고보조 예산요구액 6,185만 5,200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좀더 노력하기로 하고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3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

기타사항으로

▲ 국제부로부터 인터스테노 아시아(한·중·일) 회의 결성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 한·중·일 3국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함.

건의사항으로 김덕진 사업부장의 협회비 인상에 관한 건의와 김란희 홍보이사의 속기사의 신조 개정에 관한을 건의를 받았으며, 김점동 이사로부터 속기자격시험 주관을 대한속기협회로 이관하자는 제의가 있었음.

· 제190회 이사회(2002. 4. 22)

보고사항으로는

▲ 제35회 정기총회 개최(02.2.2)

▲ 법인 정기업무보고서 제출(02.2.20)

-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02.3.21)
- ▲ 국고보조금 중단 통보(02.3.21)
- ▲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에 관한 건의서 제출(행정자치부 02.3.25)
- ▲ 제11호 협회 소식지 발간·배포(02.4.12) 등. 이어서 2건의 부의안건 중
- ▲ 가항 2002년도 사업에 관한 건을 상정, 세미나 일정을 2002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로 하고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 다음으로
- ▲ 나항 2003년 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중단 통보와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경과 설명을 들은 후 향후 국고보조금의 계속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기로 함. 또한 2003년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으로 6,444만 7,000원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하기로 결정.
- ▲ 기타사항으로 임재룡 이사가 그간 지방의회속기사의 일반직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2002년 2월 2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

보고사항으로는 협회의 지도감독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1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등의 부의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

2002년 6월 1일·2일 양일에 걸쳐 충청남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총 17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주제발표로는 VDT증후군 임상양상과 예방대책(최경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현대음악의 이해(천호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회운영의 실제사례 연구(김성곤 국회사무처 의사국장)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음.

☒ 속기경기대회

2002년 5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제10회 속기경기대회 개최.

총 6팀(17명-수필 6명, CAS 11명)이 참가하여

금상 : 부산광역시(신상오, 고명선, 이경남)
은상 : 국회사무처(주정순, 유경화, 최영림)
동상 : 국회사무처(박정현, 윤미영, 최혜련)

◆ 회 원 등 정 ◆

승진 · 축하합니다

- 최성주·조영기(국회사무처) : 행정주사→속기사무관(02. 6. 10)
- 오근순·유미형·유점임·정향인(국회사무처) : 속기서기→속기주사보(02.7.1)
- 김선옥(국회사무처) : 서기관→부이사관, 특별승진(02. 7. 30)
- 김송화·김희준·박윤희·박정현·유경화·주정순(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보→속기서기(02. 8. 30)
- 조미경(국회사무처) : 속기주사→5급(속기사무관)대우(02. 10. 1)
- 손진분(대구 수성구의회) : 8급→7급(02. 11. 2)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 김치원(국회사무처)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연수국 교수(02. 5. 13)
- 박대성(국회사무처) :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부이사관)→특별위원회(02. 7. 20)

임용 · 축하합니다

- 이경진·조윤희·최영림(국회사무처) : 속기과(02. 7. 22)

복직 · 반갑습니다

- 조미경(국회사무처) : 속기1과(02. 9. 1)

정년퇴직/명예퇴직/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성천영(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정년퇴직(02. 6. 30)
- 김선옥(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명예퇴직(02. 7. 30)
- 김태원(통일부 정보분석국) : 정년퇴직
- 이재숙(충북 보은군의회) : 퇴직
- 김달만(충북 보은군의회) : 퇴직

·권혁국(대구광역시의회) : 퇴직

휴직 · 힘내세요

·차공순(국회사무처) : 속기1과(02. 12. 11 ~ 03. 12. 10)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주·조영기(국회사무처) : 신입관리자과정(02. 6. 17 ~ 7. 27)

수상 · 축하합니다

- 손재욱·최예숙(국회사무처) : 대통령표창(03. 1. 2)
- 정 란·박정자(국회사무처) : 국회의장표창(03. 1. 2)
- 이현실(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표창(03. 1. 2)

결혼 · 축하합니다

- 정숙(국회사무처) : 02. 6. 15
- 오근순(국회사무처) : 02. 9. 1
- 신지애(강원 영월군의회) : 02. 10. 26
- 박진우(부산 해운대구의회) : 02. 11. 10
- 유점임(국회사무처) : 02. 11. 23
- 이정선(경남 합천군의회) : 02. 10

개업 · 발전을 기원합니다

·권혁국 : 대구 로얄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03. 1. 3)

속기계 원로 이강현 선생님 별세.

2002년 7월 26일, 삼성의료원에서 투병 중 향년 71세로 작고하셨습니다. 지난 호에서 선생님 근황을 전해드렸었는데 너무나 빨리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속기인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기타 소식

·송혜경 회원 : 2002. 8. 31, 용인 자택(하늘말펜션)에서 에세이집 **그** 꽃은 신포도였다·출판기념회 개최.

■ 편집후기

38호 준비로 마음고생 했던 기억이 엇그제인데 벌써 한 해가 지나 39호 발간작 업이 마무리 되었다. 항상 갖는 마음이지만 ‘다음 번엔 좀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홍보부원 여러분 고마워요!

-蘭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해서 인쇄소로 넘긴 날,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잘 나올까 하는 염려 또한 내맘속 깊이 자리잡는다. 38호보다는 조금 여유 있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다. 다시 40호를 기약하면서.....

-文

회원들 동정을 정리하다 보니 한동안 연락 못한 친구들 얼굴이 참 보고 싶네요.

여러분~ 새해엔 우리 모두 서로의 소식을 자주 전하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속기제도 계속 아껴 주시고요.

-奉

“해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새로운 한 해였던가 생각하며 올 한 해는 새로움을 기대해 본다.”

-白

또 하나의 속기계를 만들고 2002년을 보낸다.

속기 배울 때 돌베 선생님께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해 주셨다. 나는 이 말을 항상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다.

2003년에는 과연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올까? 준비는 되어 있나?

-崔

속기계를 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내년엔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이번에도 품어본다...

-香